책을 내면서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계속되여도 이 땅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온 나라는 한가정이 되여 화목하다.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이 터치는 사회주의만세, 로동당만세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과연 조선에서는 어떤 시책들이 실시되기에 사람들모두가 저렇듯 안정되여있고 평등하고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며 저 평범한 인민들은 자기 당과 국가에 그토록 열광하는것인가.

이것이 우리 공화국을 알고싶어하는 세상사람들의 목소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서 실시되는 시책들에 대하여 알고싶어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있다.

그 질문들에 대답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들어가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조선에서 실시되는 그 모든 시책들이 《인민》이라

는 두 글자와 함께 불리운다는것이다.

《인민》이라는 글자는 공화국의 국호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 이르기까지 함께 쓰이지 않는데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정권, 인민군대, 인민적시책, 인민병원, 인민과학자, 인민체육인, 인민배우, 인민설계가, 인민대학습당, 인민극장, 인민야외빙상장, 릉라인민유원지…

진정 국호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장구한 70여년세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오직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국풍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 있어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은 모든 사업의 절대적기준이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다.

공화국정부가 실시하는 그 모든 시책들은 오직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다.

무료의무교육제, 전반적무상치료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 영예군인우대제,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돌보아주는 제도,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건설 등은 인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닿아 그 생활력을 발휘하는 인민적인 시책들이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은 인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들이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하여 실현되는 혜택이다.

비록 세대의 로력자수가 많지 않아 국가에 주는 리득이 적고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어린이와 학생수가 많아 식구수에 비한 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그들이 더 많은 추가적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생활상차이를 없애고 모든 세대가 고르롭고 유족하게 생활할수 있게 하자는것이다.

사실상 공화국에서 인민들이 당과 국가로부터 추가적으로 받는 혜택은 헤아릴수 없다. 국가에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인민들에게 많은 추가적혜택을 주고있으며 인민적시책들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더욱 세분화되여가고있다.

공화국이 여러가지 인민적인 시책을 실시하는것은 결코 남보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세계가 다 공인하듯이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가셔진때가 없었지만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자기의 활동원칙으로 일관하게 내세웠기때문이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은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사랑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강화발전시키시는 전 행정에서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공부하고 병치료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것을 기본시책으로 내세우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오늘도 인민적시책들은 변함없이 실시되고있으며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승화되여나가고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과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새롭게 실시되고 이 땅에서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본사편집부는 공화국의 인민적시책들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서를 편찬하기로 하였다.

바다물을 다 마셔보아야만 그 맛을 아는것이 아니듯 주요시책들에 대한 문답을 통하여 덜지도 보태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공화국을 알게 될것이라고 믿는바이다.

편 집 부

차 례

1. 인민적인 교육시책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교육정책을 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그 발전은 교육제도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 사회적 진보도 민족적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제하고 있다.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이라는데 그 근본적인 우월성이 있다. 공화국이 실시하는 교육시책들은 하나와 같이 무료교육제의 실시, 교육체계의 구성과 교육기관들의 배치를 비롯하여 모두 전체 인민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새 세대들을 위한 정규학교들에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도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실시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것은 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하여 전민교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있다는것이다.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으로 하여 전체 인민이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다.

이것은 오직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와 국가적시책을 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많은것에 대해 알고싶어하고있다.

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의무교육은 언제부터 실시되였는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떠나서 말할수 없다. 세계적으로 볼 때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이라고, 의무교육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학교의무교육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의 교육력사를 거슬러올라가보면 1930년대 초엽에 이르게 된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후대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개척기에 시범적으로 고유수에 청년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는 삼광학교를 세우시고 사회주의적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청년들을 혁명가로 키워내신 경험을 쌓으시였다. 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방된 조국땅에서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나라를 찾는것도 어려웠지만 나라를 찾은 다음 새 사회를 건설하기가 그에 못지 않게 어려운 그때 조국의 앞날, 민족

의 장래가 다름아닌 교육에 있다고 확신하신 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시키시였으며 교육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전체 인민이 교육사업발전을 위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의 한 고리로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페하고 누구나다 공부할수 있는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확립하여주시였으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마련되는데 따라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상 식**▷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공화국의 모든 새 세대들에게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다.

197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6개년계획기간에 10년제의무교육제로 넘어갈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고 동방에서 제일먼저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1956년),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1958년),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1967년)가 실시되였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1972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기 시작, 1975년부터 완전히 실시)를 실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하며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할수 없다고 보시고 1959년부터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뒤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법령을 채택하고 온 세상에 공포하게 하시였다.

법령은 1972～1973학년도부터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여 공화국의 새 세대들은 누구나 다 만 5살부터 로동할 나이에 이르는 11년동안 국가의 혜택으로 무료교육을 받게 되였으며 고등중학교(당시)까지의 중등일반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이 법령의 발포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무료의무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내용을 일신시키며 새 세대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인재로,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를 계기로 공화국정부의 교육정책의 위대한 생활력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되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린이와 학생수는 해당 나라의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지난 시기 자본주의나라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학생들에게서 학비를 받았으며 지어 유치원에서도 돈을 받았던것이다. 또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에도 제정된 몇몇 학생들에게만 주었다.

학령기에 있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무료로 공부하는 공화국의 의무교육제도.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의 의무교육제도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변함없이 실시되여왔으며 새 세대들은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오늘 공화국의 의무교육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공화국에서 수업료는 언제 폐지되였는가

언제인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던 남조선의 기자가 한 학생에게 월사금을 아는가고 물었는데 그 학생이 오히려 기자에게 이렇게 물어서 기자를 아연하게 한적이 있다.

《우리 궁전에는 가야금이랑, 어은금이랑은 있는데 월사금은 없어요. 그건 무슨 악기나요?》

이미 수십년전에 공화국에서는 수업료가 완전히 폐지된것으로 하여 그 이후에 태여난 새 세대들은 수업료, 월사금이라는 말을 전혀 알수가 없기때문에 생긴 일이라 하겠다.

공화국에서는 1959년 3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데 관하여》에 의하여 수업료가 완전히 폐지되였다.

학생들의 수업료를 폐지하는것은 근로자들을 온갖 교육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미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 학교들을 세우시고 학생들에게 면비교육의 혜택을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때에도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수업

료를 면제하게 하였으며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도 취해졌다.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인민학교와 초급중학교(당시) 학생들이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였다. 이밖에 초등학원, 유자녀학원, 기능전수학교, 사범전문학교, 각급 야간학교, 통신학교, 각종 특수교육기관, 각급 간부양성기관 학생들의 수업료도 면제하게 하였다.

후대교육사업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더 잘 보장하며 교육의 발전을 더욱 다그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받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1959년 4월 1일부터 모든 학생들이 한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공부하게 되였다. 공화국에서는 이때부터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하게 되였다.

참으로 수업료의 전반적페지는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의 숭고한 발현이였으며 사회주의교육정책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되였다.

이 내각결정과 더불어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나라의 교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기간에 학생들은 어떤 국가적인 혜택을 받는가

2012년 9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무료교육기간을 1년동안이나 더 늘인다는것은 참으로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으로부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에로의 상승.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조국관, 미래관이 구현되여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일대 사변이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주어 새 세대들에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의무교육이다.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받는 12년간 무료의무교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에 의해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12년제의무교육기간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혜택은 실로 크다.

유치원 높은반을 마치고 소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교복과 학용품을 무상으로 또는 매우 눅은 값으로 공급받게 된다.

학생들은 콤퓨터를 리용한 정보기술학습, 시청각설비를 리용한 외국어학습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과목학습에 리용되는 각종 설비와 자재, 시약과 도구 등을 무료로 리용한다.

도서실에서 무료로 열람, 대출하고있으며 학교체육관, 수영장, 음악무용실을 비롯한 각종 소조들에서 기재와 설비들을 무료로 리용한다.

학교의 치료실에서 받는 봉사도 무료이다.

또한 학생들은 매일 콩우유를 공급받는다.

중앙과 도, 시, 군소년단야영소들에서 야영생활을 무료로 하고있으며 무료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명승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견학, 참관, 답사를 진행한다.

그뿐이 아니다.

섬, 깊은 산골의 몇명 안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분교)가 공화국의 곳곳에 수천개나 세워져있으며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있다.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훌륭한 통학조건을 보장받는다.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좁혀주는것과 함께 국가적으로 량강도와 자강도를 비롯하여 학교길이 불편한 곳마다에 통학렬차나 통학뻐스, 통학배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배울수 있게 하고있다.

통학렬차의 경우만 놓고봐도 국가에서 전적으로 그 운영비를 부담하며 기관차, 객차의 담당승무원들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전적으로 봉사한다. 통학렬차는 두세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역이 없어도 도중에 세워 그들을 태우고 떠난다. 통학렬차안에는 여러가지 책들이 들어있는 도서함과 책상, 걸상이 마련되여있어 학생들이 학교에 오가는 시간에도 공부할수 있게 되여있다.

영화관이나 극장, 전람관, 전시장 등을 매우 눅은 입장료를 내고 리용하는것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국가의 혜택이다.

학생들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 무료로 재능을 련마한다.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은 완전히 국가의 혜택으로 먹고 입고 쓰고 배우는 모든것을 보장받고있으며 맹인, 롱아학교 학생들은 장애자대우를 받으며 공부하고있다.

이렇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대학추천을 받으며 국가가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수험표발급, 기숙조건보장, 귀교 등 조건을 전적으

로 담당한다.

이들이 공부하는 전기간 교육조건과 환경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된다.

이렇듯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공화국의 모든 새 세대들은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마음껏 배우며 높은 중등일반지식능력과 기술기능뿐아니라 고상한 품성, 튼튼한 체력을 갖춘 훌륭한 나라의 역군들로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위인일화❖

중 대 사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여 진렬해놓은 천견본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생교복천진렬대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신 학생교복을 만든 천견본을 전시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전시하지 못하였다고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전부터 온 나라의 학생청소년들에게 교복을 새롭게 해입힐 구상을 펼치시고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시였으며 여러차례 견본을 보아주시면서 교복의 형태와 색갈, 모양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일군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전시한 교복천을 만져보시며 제품견본실에 있는 교복천이 괜찮다고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온 나라의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복을 만들어 입히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이 공장에서 교복천생산을 잘하여야 한다고, 앞으로 온 나라의 학생들에게 내가 보아준 견본대로 교복을 해입히면 사회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만들어 입히려면 교복천과 교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다 갖추어놓아야 할것이라고, 교복생산과 관련한 보장대책을 세워주겠다고 하시며 즉석에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후 2014년 12월의 어느날이였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찬바람부는 겨울날에 또다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여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특히 학생교복천생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교복생산과 공급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시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결하여야 할 문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으며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학생교복문제를 푸는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중대사!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이의 숭고한 후대관에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1958년부터 전국의 모든 소학교 학생들에게 나라에서 교복을 해입히는 체계가 서게 된 때로부터 학생교복문제는 언제 한번 소홀히 된적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또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생교복문제를 조국의 미래를 훌륭히 키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생교복을 만들어줘도 온 도시가 환하게 만들어주자고 하시며 남녀학생들의 기호에 맞게 그 천색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이채로운 새 학생교복들이 생산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눅은 값으로 공급되게 되였다.

❖위인일화❖

《소나무》책가방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손에는 책가방을, 다른 손에는 악기와 다른 소지품을 들고 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시였다.

아이들에게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면 활동하는데 아주 편리할것이 아닌가.

오래도록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런 생각을 거듭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공업부문의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거시고 아이들에게 멋진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자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온 나라 아이들의 가방문제가 국가의 중대사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때로는 도안가들의 안목을 틔워주시려 자신께서 연구하시던 100여페지나 되는 가방생산과 관련한 참고자료들을 해당 부문 전문가들에게 보내주시였고 때로는 몸소 가방도안가가 되시여 무려 450여건의 도안도 보아주시였다.

주체103(2014)년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에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6년 1월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

시 공장을 찾으시여 새로 꾸린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만든 멋있는 가방을 메고 웃고 떠들며 학교로 오고갈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던 2017년 1월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남녀학생가방들이 진렬되여있었다.

보기만 하여도 절로 마음이 흐뭇해지는 광경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한 가방천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취미, 기호,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와 색갈의 가방들을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좋고 멋있는 가방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러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학생용가방도안을 일일이 보아주시며 아이들에게 안겨줄 가방을 우리 식으로, 우리의 멋이 나게 만들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가방공장이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가방사태, 가방풍년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

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 별세상에 와본것 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가방사태, 가방풍년!

정녕 그것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실 불타는 의지로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의 응결체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후대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때로부터 공화국의 모든 학생들은 보기에도 좋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리한 배낭식가방을 메고 다니게 되였다.

공화국의 교육제도를 가리켜 왜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제도라고 하는가

그것은 국가가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시종일관 내세우고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기때문이다.

참다운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을 전제로 하며 무료교육은 의무교육의 성과적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한다. 비록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교육의 대상에게 과중한 학비를 부담시킨다면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의무교육이 아니며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담보도 없는 형식에 불과한것이다.

우에서도 언급한것처럼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자라나고있으며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와 대학들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료란 말조차 모르고 무료교육을 받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교육비를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있을뿐아니라 전체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교복과 교과서, 학용품을 무상 또는 눅은 값으로 공급하여주고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며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실험실습,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다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이를 위해 공화국에서는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있으며 그것을 해마다 계통적으로 늘이

고있다.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돌려지는 무료교육의 혜택은 결국 교육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지출의 크기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사회제도의 성격과 경제토대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화국에서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날로 더욱 튼튼하여지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학교교육뿐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복, 신발, 학용품, 가방 등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서 풀어주고있다.

사실 국가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보상해주는 옷값만 하여도 참으로 막대하다.

국제사회는 교육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으면서 그에 토대하여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

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

교육조건과 환경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교육조건과 환경은 학생교육교양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객관적요인들의 총체이다.

공화국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된다.

국가계획에 따라 학교건설과 보수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자금이 보장되며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교편물,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설비들을 보장한다.

전국적으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학교후원단체로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보장하기 위한 후원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최근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울데 대한 목표를 내걸고 현 단계에서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고있다.

주체103(2014)년 8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재양성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과 같고 교육조건은 거름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나무를 잘 키우자면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하고 비옥한 토양은 거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재양성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공화국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2017년에만도 전국적으로 새로운 교종인 기술고급중학교와 소학교 5학년과정안이 실시되는데 맞게 교과서출판과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설비보장, 교사건설에 대한 전국가적, 전사회적지원사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초등 및 중등교육부문의 모든 학교들에 70여종에 1 000여만권의 새 교과서가 공급되였으며 각급 학교들에 근 8 000개의 교실들이 새로 꾸려지게 되였다.

과학기술인재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도록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힘을 넣어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는데 여러 대학들의 교사들과 도서관, 기숙사, 체육관 등을 시대의 요구를 체현한 멋쟁이건축물들로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또한 평양시를 본보기단위로 하여 전국적범위에서의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

되여 초등 및 중등교육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교사가 새로 훌륭하게 건설되거나 개건되였으며 1만여개의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들로 전변되였다.

대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들은 어떤것들인가

공화국에서 장학금이라는 말은 흔히 들을수 있어도 등록금, 학비라는 말은 들을래야 들을수가 없다. 모든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무료일뿐만아니라 그들에게 국가가 장학금까지 보장해주기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등록금이며 학비때문에 매해 퇴학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있으며 수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마련을 위해 식당이나 공사판, 유흥업소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품팔이로동을 하고있으며 지어 의학생체실험대상으로 자기 몸을 바치는 기막힌 광경도 펼쳐지고있다.

등록금과 학비때문에 고통을 겪는 자본주의사회의 대학생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조건속에서 공부하는 공화국의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인 혜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몇가지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우선 대학에 다니는 전기간 대학생들은 교사와 기숙사 등

교육건물과 실험실습설비들, 전기, 물, 난방을 무료로 리용할 뿐아니라 도서관도 무료로 리용한다.

수영장, 체육관을 비롯한 대학의 모든 체육시설을 무료로 리용하며 교내의 상업, 편의봉사시설들을 눅은 값으로 리용한다.

기숙사생들인 경우 식비를 매우 눅은 값으로 지불하고있다.

대학생들은 또한 교복, 신발, 학용품을 눅은 값으로 공급받는다.

국가는 대학생들이 리용하는 뻐스운행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방학기간에도 식량을 공급한다. 이밖에도 답사기간 봉사료금은 눅은 값으로 지불하며 실습기간 렬차운행비도 국가가 부담한다.

공화국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하루 6시간 로동을 한다.

통신대학생들은 등교기간 생활비와 식량을 공급받으며 유해부문에서 실험실습하는 경우 건강보호물자를 공급받는다.

원격교육을 받고있는 대학생들은 학습의 전기간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무료로 봉사받고있다.

교원양성부문 대학 학생들은 다른 대학 학생들보다 매월 장학금을 더 지불받는다.

이외에도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전기간에 국가로부터 알게 모르게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마음껏 배우고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나고있다.

❖위인일화❖

국가장학금제도가 나오게 된 사연

주체36(1947)년 5월 하순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몇몇 학생들과 대학일군들을 부르시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청사로 간 그들이 그이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서려는데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띠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문을 여시고 마주 나오시며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고 학생들을 의자에 앉히신 다음 전부터 만나려고 하였는데 그동안 시간을 얻지 못해 미루어왔다고 하시면서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있는지 그 형편을 들어보자고 하시였다.

학생들은 한결같이 불편한 점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학생들의 몸가짐에서 어려워하는 기색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통의 편지들을 꺼내놓으시며 외국에 가있는 우리 류학생들의 편지인데 그들은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할뿐더러 그 나라 학생들과 롱구경기를 하여 이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 내주신 편지를 서로 돌려가는 사이에 학생들은 어려움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굳어졌던 마음도 풀렸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요즘 출석정형은 어떤가, 생활이 곤난하여 대학을 그만두는 동무들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학생들과 대학일군들은 그이께서 벌써 대학형편을 환히 알고계신다는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 학생이 일어나 출석률은 그전보다 높아가고있으나 가정사정이 곤난하여 대학을 그만두려는 학생이 더러 있다는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신채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시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자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있는 학생들과 대학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나라는 아직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들이 조그마한 곤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어서야 되겠는가고 저으기 갈리신 목소리로 교시하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나라의 사정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전체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수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생활이 아직 넉넉하지 못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장학금을 주는외에 여름옷과 겨울옷을 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이 안착하여 공부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어떤가고 의견을 물으시였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정에 가슴을 들먹이던 학생들과 대학의 일군들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힘있게 대답을 올렸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신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시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러르는 학생들과 대학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뜨거운 감사의 정이 꽉 차올랐다.

종합대학을 창립하기 전인 1946년 6월 28일 예비과를 둘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면서 예비과 학생들에게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나라에서 장학금과 교과서, 학용품 등을 내주어 공부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고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대학창립준비위원회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지금 나라의 형편은 어렵지만 예비과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고, 나라의 형편이 펴이는 차제로 본학부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리하여 예비과 학생들은 대학창립당시로부터 모두가 국가장학금을 비롯하여 교복과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였다.

그러시고도 본학부 학생들에게 당장 장학금을 내주지 못하는 것이 가슴아프시여 늘 마음속에 품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늘은 친히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장학금을 줄데 대한 국가적조치를 알려주시면서 그처럼 기뻐하시는것이였다.

그후 종합대학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조건은 몰라보게 달라지고 교사와 기숙사, 식당, 편의시설들이 더욱 알뜰히 꾸려졌으며 학습장과 잉크, 신발 등이 공급되였다.

특히 1947년 6월 20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33호로 《전문학교, 대학생 장학금수여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됨으로써 국가장학금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국가장학금제의 실시!

그것은 해방된 새 조선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미더운 기둥감으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크나큰 사랑이 낳은 인민적시책이였다.

❖위인일화❖

통이 큰 타산안

주체95(2006)년 1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찾아주시였다.

도서관의 여러곳을 다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전자도서관을 마저 완비하여야 하겠다고, 오늘 돌아보

니 도서관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망성이 있게 더 잘 꾸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대학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봉사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타산안을 세우도록 하시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대학의 일군들은 해당 일군들과 협의하여 타산안을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였다.

그 타산안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타산안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세웠는가고, 나라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전자도서관을 세계의 첨단으로 꾸려야 하지 않는가고 하시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통이 큰 타산안을 세워주시였다.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과학기술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이 가슴뜨겁게 어려와 눈시울을 적시였다.

공화국에서 수재들은 어떻게 육성되는가

공화국에서 수재들은 정연한 수재교육체계에 의하여 육성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구상에 의하여 마련된 인민적교육시책의 하나인 수재교육체계는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수재형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기초과학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체계이다.

공화국의 수재교육체계는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후비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질적으로 키워내는 우월한 교육체계이며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특성과 발전추세에 맞는 현대적과학기술인재양성체계이다.

공화국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시기부터 특출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찾아내여 조기교육을 주고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들에서 과외소조들을 통하여 재능을 꽃피우고 공고히 다지도록 하고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지만 그것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바로 여기에 공화국의 수재교육체계의 인민적성격이 있다.

수재교육사업은 이미 1970년대초부터 시작되였다. 공화국에서는 주체예술의 절박한 요구와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육성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자체의 예술인후비양성기지를 가지기

위하여 도마다 예술전문학교를 내오고 예술분야에서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유능한 예술인후비들을 전망성있게 체계적으로 키워내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체육을 종목별로 전문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어릴 때부터 좋은 체질과 남다른 체육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주기 위한 정연한 교육체계를 세움으로써 체육핵심들과 후비들을 키웠다.

예술, 체육분야의 수재육성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1980년대에 과학기술부문의 수재육성과 관련한 과업이 제시되고 기초과학분야에서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수재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 하여 1984년 수재양성을 위한 평양제1중학교(당시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개교한 이후 각 도들에 제1중학교들이 설립되였다.

1990년대에는 수재교육의 폭을 넓혀 보통교육단계에서부터 여러 분야의 수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여 공화국에서는 문학수재, 콤퓨터수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수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수재교육체계가 보다 정연하게 세워졌다.

대학들에도 수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체계가 세워졌다.

특히 과학기술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떨쳐갈 콤퓨터수재, 기초과학분야의 수재들과 세계적인 성악가, 독주가, 미술가,

설계가, 건축가들을 키워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의 인재중시사상의 구현인 수재교육체계에 의하여 오늘 세계적으로 자랑할만 한 수재, 재사들이 련이어 배출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떨치며 인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최근에만 놓고보더라도 여러 국제축전에서 훌륭한 예술적기량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이름을 떨친 경상유치원의 어린이들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16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벗들을 맞이한다》에서도 어은금4중주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9년 12월에 있은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도 공화국의 대학생들이 28개의 메달을 쟁취하여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단연 제1위를 한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공화국의 수재교육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알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이름떨치는 공화국의 학생들이 거둔 자랑찬 성과를 꼽자면 끝이 없다. 이 모든 사실들은 곧 가장 인민적이며 우월한 인재양성정책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치렬한 과학기술경쟁, 인재경쟁의 시대인 지식경제시대에 수재교육에 대한 사회적요구는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오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기에 많은 나라들이 《21세기의 주요경쟁무기는 인재》, 《성패는 인재가 결정한다.》, 《21세기의 가장 훌륭한 재부는 인재》, 《인재확보는 21세기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인재쟁탈전을 벌리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은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이 사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있다.

오늘도 공화국은 수재교육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수재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은 무엇인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역시 인민적인 교육시책의 내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과 본신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는 우월한 교육체계로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통신교육망, 원격교육대학망,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

습체계와 같은 교육형태들로 이루어져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세워지고 그것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되여왔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서 리탈되지 않고 공장대학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고등교육을 받게 하여 생산은 생산대로 하면서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다는데 그 우월성이 있다.

해방직후 대부분의 근로대중이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초보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형편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의 규모와 교육기간이 제한되여있은 조건에 맞게 인민정권은 전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하여 1947년 4월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체계에 관한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에서는 당과 국가의 옳바른 정책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가 부단히 발전강화되였는데 전화의

나날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하나로 첫 공장대학이 창설되였으며 1958년에는 성인학교, 성인중학교가 근로자학교, 근로자중학교로 개편되였다.

1977년에는 근로자중학교가 근로자고등중학교로 개편되였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된 후 5년동안에만도 21개의 공장대학, 수십개의 전문학교들이 나왔고 1980년대초부터 텔레비죤방송대학이 나와 교육방송을 진행하였다.

1989년말에 모든 근로자들이 중학교졸업수준이상에 이르게 되자 근로자고등중학교를 페지하고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과 통신교육망체계로 강화발전시키였다.

첫 공장대학이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이 창설되여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하고있다.

이처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람들을 힘있는 창조적능력의 소유자로 키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새 기술창조와 혁신의 앞장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서있다.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서도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제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깊이 느낄수 있게 한다.

현시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조선로동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펼쳐진 원격교육망을 통한 교육체계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교육체계이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원격교육망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훌륭히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들을 통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은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사회교육은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가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제하였다.

공화국에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함께 사회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온 나라 청소년들과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무료로 진행하고있다.

사회교육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청년회관, 과학기

술전당, 인민대학습당, 도서관, 박물관 등 사회교양기관들과 과외교양기지들에서 진행하고있다.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충하며 사람들을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교육은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상 식▷

인민대학습당

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는 남산재는 앞으로는 맑고 푸른 대동강과 동평양일대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고 옆으로는 만수대와 모란봉이 펼쳐져있어 오래전부터 명당자리로 일러온 곳이다.

바로 이런 명당터에 학이 나래를 펴고 날아오르는듯 한 합각지붕과 푸른 기와를 얹은 웅장하고 화려한 조선식건축물이 자리잡고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인민대학습당이다.

인민대학습당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구상과 현명한 손길아래 1982년 4월에 개관되였다.

흘러온 인류사를 보면 력사의 그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나라마다 수도를 꾸리는 사업이 특별히 중시되여왔으며 그중에서도 수도의 중심부형성에는 각별한 관심이 돌려졌다. 그것은 나라의 전반적발전면모를 특징짓는데서 수도가 어떻게 꾸려졌는가, 특히 수도의 중심부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기때문이다.

공화국에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개성학생소년궁전 등 전국의 학생소년궁전들과 학생소년회관들에서 예능교육, 콤퓨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하고 한가지이상의 재능을 갖춘 미래의 역군들로 키워내고있다.

10만권의 장서능력을 가진 도서실과 콤퓨터실, 수영관, 체육관, 전자유희오락관, 야외수영장, 로라스케트장, 자동차운

하여 그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수도의 중심에는 웅장한 왕궁이나 정부기관들이 들어앉고 또 자기나름의 품위를 돋구며 종교사원들이 늘어서는가 하면 권세있고 돈많은자들을 위한 번화한 거리가 형성되는것이 례상사이다.

그러나 공화국의 수도의 한복판에는 그것도 명당이라 불리워온 곳에는 정부청사가 아닌 인민을 위한 배움의 전당이 자리잡고있다.

인민대학습당은 연건평이 10만㎡에 달하고 3 000만권의 장서능력을 가진 서고와 6 000석의 좌석을 가진 23개의 열람실, 14개의 강의실, 여러개의 통보실, 문답실, 음악감상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우리 식의 독특한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다.

세상에는 오랜 력사와 전통, 규모를 자랑하는 도서관들이 많지만 우리의 인민대학습당처럼 전민이 직업이나 직종, 계층별에 무관하게 남녀로소가 드나들며 공부하는 문자 그대로의 전민학습의 대전당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강국의 령마루로 치달아오르는 조선의 모습인양 남산재우에 웅장하게 자리잡은 인민대학습당으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전실습장들을 갖추고 하루 수천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한해에도 수십만명의 학생소년들이 과외교육을 받고있다. 이 궁전에서만도 수많은 과학자후비, 예술인후비, 체육인후비들과 애호가들이 나왔다.

인민대학습당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사회교육기지이다.

전민학습의 대전당 인민대학습당에서는 근 40년간 연 수천만명에 대한 각종 열람봉사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국각지에 도서관과 도서실들이 훌륭히 꾸려져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를 진행하고있다.

전민학습의 중심기지인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관수는 1946년에 비하여 수십배로 장성하였다.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방전 일제는 교육은 고사하고 조선에서 인재가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명인들이 출생한 고장들과 풍수가 좋은 산맥마다에 쇠장대와 쇠말뚝을 박아 지맥을 끊고 《령혼》을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미쳐날뛰였다.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우민화정책으로 인재가 얼마 없었던 조선이 오늘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으로 민족간부양성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수백만명의 지식인대군을 가지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배우는 《교육의 나라》로 세상에 이름떨칠수 있게 되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서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 대규모적인 전자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는 과학기술전당과 보다 훌륭하게 꾸려지고있는 전국의 소년단야영소들과 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과외교양기지들은 후대교육사업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위인일화❖

과학기술전당이 일떠서게 된 사연

대동강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풍치수려한 쑥섬에 특색있게 솟아난 국보적인 건축물인 과학기술전당.

누구나 찾아와 미래행차표를 떼고 과학기술의 기관차에 오르게 하는 과학기술전당이 일떠서게 된데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로고가 깃들어있다.

몇해전 6월 어느날 쑥섬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릉라도, 양각도와 함께 평양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쑥섬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특색있게 개발하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과학기술발전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우리 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

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지식보급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고, 당에서는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쑥섬에 현대적인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수자화하여 보존관리하는 종합적인 자료구축기지인 동시에 각이한 자료들을 망을 통하여 임의로 볼수 있게 하며 정보공유, 정보교류도 할수 있게 하는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봉사기지,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과학기술전당의 웅대한 설계도였다.

그날 대동강 량안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명당자리라고, 쑥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나라가 세계를 앞서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될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그려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여도 과학기술발전만은 언제나 선차적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는 순간이였다.

몸소 건설주가 되시여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해주시고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쑥섬은 인민들이 끝없이 찾아오는 과학의 섬으로 전변

되였다.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게 되였고 과학기술전당은 말그대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추동하는 도약대로 되고있다.

진정 과학기술전당은 조국인민모두를 과학기술의 창조자로 키우시고 주체과학의 신비한 힘을 총폭발시켜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로 빛을 뿌리고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조선속담에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몸에 푹 밴 버릇은 나이가 들어서도 바로잡기 힘들기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쁜 버릇에 습관되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무를 곧바르게 자래우려면 어린나무때부터 잘 자래워야 하는것처럼 사회적존재인 사람 역시 어려서부터 좋은 교양을 주고 잘 키워야 하는것이다.

사람의 사상과 품격은 사회적교양을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형성되고 공고발전되기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회적관

계속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할 때 참다운 품격을 가진 인간으로 훌륭히 키울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워주는 사회주의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여있다. 어린이들을 국가에서 맡아 키워주는것은 중요한 사회주의적시책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

◁상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어린이들의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도덕적, 지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화국의 법이다.

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되였으며 1999년 3월에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어린이보육교양법은 세상에 태여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위생영양관리와 사회주의적교양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발전된 지능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참다운 사회주의적인간으로 되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6개 장 58개 조로 되여있다.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에서는 이 법의 혁명전통과 사명을 밝히고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을 비롯하여 어린이보육교양사업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였다.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에서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건설, 식량과 식료

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집단적인 교육은 훌륭한 인간육성의 근본방도이다.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워주면 어려서부터 집단주의사상과 사회주의도덕품성이 싹트게 되며 지적발전과 육체적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공화국의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어린이보육교양에 필

품, 옷, 신발, 어린이용품공급 등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여러가지 혜택과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규범화하였다.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에서는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것을 혁명가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규정하고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울데 대한 문제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보장, 의료봉사, 어린이보육사업의 과학화문제 등을 법화하였다.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탁아소, 유치원의 교육교양사업의 원칙적요구와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5장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과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에서는 보육원, 교양원들에 대한 대우, 그들의 품성과 자질, 임무,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의 지위와 조직운영, 그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와 조건보장 등에 대하여 법문화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어린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구현된것으로서 어린이들을 가장 훌륭하게 키울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교양헌장이다.

이 법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요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는 인민적인 보육교양제도이다.

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은 부모의 직업과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줄이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로서 어린이보육교양분야에 구현된 인민적시책의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맡아 키우는 사업은 후대육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또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녀성들을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고있는 공화국에서는 탁아유치원생들에 대한 훌륭한 보육제도를 보장함으로써 녀성들이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돌려지던 많은 시간을 사회정치활동에 돌릴수 있게 되였으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같은 나이의 어린이들속에서 재미나게 생활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특히 기자, 교원, 연구사, 예술인, 의사 그리고 출장이 잦은 녀성들을 비롯하여 직업상특성으로 일이 바쁜 녀성들과

자식을 넌년생으로 낳은 녀성들을 위한 주탁아소, 주유치원이 곳곳에 있어 녀성들이 사회정치활동에서 아무러한 불편도 느끼지 못하고 일해나가고있다.

전국적으로 학령전어린이들을 빠짐없이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는것은 사실상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건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물론 탁아유치원생들의 식료품값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어찌 그뿐인가.

부모잃은 어린이들은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에서 국가가 말아 키워주며 여러명의 어린이를 키우는 녀성 특히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다.

공화국에서의 어린이보육제도의 우월성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모든 어린이들을 정신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건전하게 키우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는데 있다.

어려서부터 동무들을 사랑하고 일하기 좋아하며 례절이 바르고 공동재산을 아끼도록 교육교양하고있으며 그들의 정서와 재능, 지능을 활짝 꽃피워주고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주고있다.

어린이들은 유치원과정에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충분히 받고있다.

세상에서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 어린이들속에서는 꼬마수재, 꼬마재간둥이들이 수많이 자라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공기, 해빛, 물과 체육기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도 주고있다.

어린이들에게는 누구라 할것없이 태여나자부터 건강관리부가 따라다니며 탁아소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영양일지, 보육일지가 따라다닌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녀성들이 아이를 적게 또는 아예 낳지 않거나 낳았다고 해도 돌보지 않는것이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그 원인의 하나가 엄청난 양육비부담에 있다고 평하고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어린이 한명을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어른 한명의 월수입전액을 바쳐야 한다고 한다.

정말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공화국의 어느 시책이나 다 그러하지만 어린이보육교양제도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 강령에서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새 조국건설시기 어려운 형편에서도 국가자금으로 도시와 공장, 기업소들, 국영농장들에 탁아소, 유치원들을 내오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인민적시책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육아원, 애육원들을 내오고 전재고아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맡아 키우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때부터 공화국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서 애육원과 초등, 중등학원에서 무료로 공부시키고 있기때문에 그들은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배움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있다.

전후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부터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탁아소, 유치원들이 새로 건설되고 이미 있는 건물들중에서 제일 좋은 건물들이 탁아소, 유치원으로 돌려졌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감, 식료품생산에 많은 국가자금이 투자되였다.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제도는 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됨으로써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그후 1999년 3월

에 다시 수정보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그대로 아이들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날들도 끝이 없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이 내놓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신념의 구호에는 비록 자기는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에게만은 더 좋은 앞날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사상이 반영되여있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더라도 어린이들의 얼굴에만은 그늘이 지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였다.

절세위인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콩우유차는 하루도 중단없이 사랑의 경적소리를 울리며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에 어김없이 가닿군 하였다.

오늘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관, 미래관에 의하여 그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배려에 의하여 훌륭히 개건되고 꾸려진 창광유치원, 경상유치원, 미래유치원을 비롯하여 온 나라 도처의 유치원들과 애육원, 육아원들은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중요한 거점

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에는 오늘도 갖가지 과일들과 어린이식료품들이 선참으로, 정상적으로 보장되고있으며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외국의 벗들은 하나같이 찬탄의 목소리들을 울리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이 하늘이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왕은 아이들이였다. 어디 가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궁전이다.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만 보아도 조선의 더 밝은 앞날을 그려볼수 있다.》

공화국에 《학교》를 가지고있는 병원이 있다는것이 정말인가

사회주의무료의무교육제도의 혜택으로 온 나라의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배우며 희망을 꽃피우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희한한 현실들이 수많이 꽃펴나고있다.

사회주의문명의 새로운 전성기와 더불어 평양의 문수지구에 첨단의료설비들과 시설을 그쯘하게 갖추고 현대적으로 일떠선 아동의료봉사기지인 옥류아동병원.

동화속의 아동궁전을 방불케 하여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한번 들어가보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병원, 척 들어서면 대형아크릴화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한눈에 안겨오고 벽체들마다에는 인기있는 아동영화와 세계명작동화집에서 나오는 1 700여점의 재미있는 그림들이 걸려있는 병원의 내부, 실내와 야외의 여러곳에 놀이장들과 휴식장들이 꾸려져있는 이 병원에 바로 《학교》가 있는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입원한 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이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현대적인 입원실, 치료실과 나란히 있는 《중학교실》, 《소학교실》, 《유치원교양실》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방들에는 깜찍하게 생긴 책상과 걸상들이 놓여있고 의

사들이 아닌 교원들이 있으며 출석부가 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의 이름은 병력서에만 오르는것이 아니라 병원에 꾸려진 이 교실들의 출석부에도 올라있는것이다. 병원에 있는 교실과 출석부, 이것을 두고 공화국의 인민들은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손길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앓으면 앓을세라 제일먼저 가닿는 무상치료의 따뜻한 손길, 치료를 받으며 학업이 뒤떨어질세라 애어린 가슴들에 그득히 안겨지는 무료교육의 혜택.

이 땅 그 어디에 있어도 누구에게나 비쳐드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사랑이다.

옥류아동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은 오전치료만 끝나면 언제 환자였던가싶게 저마다 교실로 가서 공부한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새별처럼 반짝이는 눈과 맑은 목소리로 글도 읽고 노래도 부른다.

여기에서 단 며칠이라도 공부한 아이들은 병원에서 수업을 받은 이 추억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영원히 잊지 못해한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어느해 봄날 옥류아동병원으로 평양미술대학 수험생이 구급으로 들어온적이 있다. 며칠후 그가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뜻밖에도 병원으로는 수험생의 입학시험을 위해 교원들이 들어섰다. 그날 그 수험생은 너무도 감격하여 시험칠 생각도 잊

고 침대에 앉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언제인가는 병원의 고려치료과 입원실로 청신경장애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소학생이 들어왔다. 오래동안 말을 못해본 학생의 혀는 어느 정도 굳어져 이곳 의료일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언어장애를 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려치료과 의료일군들은 즉시 병원의 교육교양과 교원들과 함께 협동작전을 벌렸다. 그후 환자는 한 교원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나서 처음으로 가갸표를 배웠다.

어느날 한 글자, 두 글자 또박또박 찍어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고난 환자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한동안 앉아 아들의 얼굴을 어루쓸며 눈물만 흘리던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너의 병을 알고 이런 훌륭한 병원을 세워주신것만 같다고, 진정 원수님이시야말로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격정을 터쳤다.

바로 이런 고마운 제도에서 후대들이 살고 인민이 살고있다.

이 지구상에 억만재부를 자랑하고 《만민복지》를 떠드는 나라들이 많다지만 평범한 인민의 자식들이 담당의사와 담임교원을 곁에 두고 매끼 영양식사까지 공급받으며 병치료를 받는 나라가 그 어디에 있겠는가.

옥류아동병원을 찾았던 자본주의나라의 한 저명한 인사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고 한다.

《흔히 병원이라고 하면 환자치료를 위한 의사와 의료기구 등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 병원에는 입원한 어린이들이 학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할수 있게 교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이러한 현실을 제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것이다.

공화국의 옥류아동병원이야말로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을 다같이 받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병원이다. 사회주의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이런 행복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공화국에서는 원아들이 제일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훌륭하게 자라고있다는것이 사실인가

한해가 저물어가는 섣달그믐날, 얇은 옷에 맨발의 어린 소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위에 떨면서 골목 처마밑에 웅크리고 앉아 성냥을 판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냥을 사주지 않았다. 처녀애의 손발은 이미 꽁꽁 얼어있었다. 소녀는 추위를 덜어보려고 성냥가치 불을 켰다. 소녀가 켠 성냥개비 불꽃은 따뜻했다. 으리으리한 집에 잘 차린 음식상도, 아름답게 장식한 설맞이나무우에 앉아있는 자신도, 자기를 사랑해주던 돌아가신 할머니의 인자한 모습도 그 불빛속에 나타났다.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오래 보고싶은 마음에 소녀는 팔

다남은 성냥을 모두 그었다.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 그와 함께 추위도 굶주림도 없는 먼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다음날 아침 소녀는 벽에 기댄채 잠든듯 죽어있었다. 타버린 성냥을 손에 쥔채 행복한 미소를 담고.

이것은 단마르크작가인 안데르쎈의 동화 《성냥파는 아이》(1845년)의 기본이야기줄거리이다.

이 동화이야기는 결코 19세기의 동화로만 끝난것이 아니다.

파란많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는 현대판 《성냥파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이다.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나 집없는 아이들, 부모잃은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발전되였다고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도 부모잃은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면을 보여주는 존재》로, 세계적으로 고아들의 문제는 해결방도가 없는 골치거리로 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만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부모잃은 아이는 있어도 부모없는 아이는 있을수 없다.

공화국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부모있는 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조건과 환경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며 자라고있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공화국의 모든 원아들은 당과 국가의 온갖 보살핌속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자란다.

예로부터 부모잃은 아이들은 고생속에서 남달리 일찍 철

이 든다고 하였지만 공화국의 모든 원아들은 행복속에서 일찍 철이 든다.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 훌륭하게 꾸려진 애육원과 육아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에 가면 당과 국가가 안겨주는 행복속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원아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비록 낳아준 부모는 곁을 떠났지만 원아들에게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살뜰히 돌봐주는 많은 엄마들이 있다. 잠재워주는 엄마, 밥먹여주는 엄마, 속옷 다려주는 엄마, 아플세라 보살펴주는 엄마, 여기에 피아노며 가야금을 배워주는 선생님도 있어 엄마없는 설음을 모르고 자라는 원아들이다.

포근한 잠방으로부터 시작하여 놀이장의 자그마한 놀이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된 애육원과 육아원에서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계발과 체력단련에 도움을 주는 하루일과들이 진행된다.

따스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동심에 어울리는 재미나는 음악에 맞추어 체조를 한 후에는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실내외에 훌륭히 갖추어진 놀이장들에서 마음껏 뛰여논다.

각이한 모양의 미끄럼대들, 여러가지 인형, 지능놀이감 등이 가득한 실내놀이장의 여기저기에 넘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원아들이 기다리는 우리 말 공부, 노래공부, 춤공부시간도 서로서로 지지 않으려는 은근한 승벽심속에 즐겁게 흘러간다.

이뿐이 아니다.

원아들의 식사시간과 새참시간들에는 친어머니도 기울이지 못할 다심한 사랑이 비껴있다.

영양학적으로 계산된 식사계획표에 따라 원아들은 붉은게살튀기, 철갑상어찜, 칠색송어졸임, 숭어탕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다. 몸이 약해진 어린이들을 위한 개별식사계획표도 따로 있으며 그들에게 잣죽을 비롯한 영양가높은 음식들을 매일 정상적으로 먹인다.

전국의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도 이와 다를바없다.

해빛밝은 곳마다에 훌륭하게 일떠선 멋쟁이학원들이다.

콤퓨터와 촬영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이 갖추어진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 정보기술학습실과 외국어학습실, 자동차실습실, 각종 동물표본들과 박제품들, 여러가지 시약들과 실험기구들이 꽉 들어찬 생물실험실과 화학실험실들, 다기능체육홀, 수영장이 자리잡은 체육관, 아담하고 산뜻한 침실과 한증탕, 세면장이며 연회장을 방불케 하는 식사실이 있는 기숙사에서 원아들은 자기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꽃피우며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듯이 원아들에게 돌려주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떠나 원아들의 행복한 오늘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방후에도, 가렬처절했던 조국

해방전쟁시기에도 적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혁명가유자녀들과 고아들을 걱정하시며 그들을 위해 초등학원과 애육원을 늘이도록 하여주시였다. 1956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협의회에서와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은 전재고아들의 양육, 보호사업에 사회적관심을 돌리며 애육원, 초등학원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하여 그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하여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들이 생겨나 아이들을 품어안아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그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혁명생애의 전기간 언제나 원아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꽃피워주고계신다.

주체103(2014)년 2월초 차디찬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강조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불과 몇해동안에 이 땅에는 원아들의 보금자리들이 수많이 태여났다.

원아들에게 옳바른 도덕품성과 창발성, 자립성과 독자성을

키워주어 그들속에서 인민군대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며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배려속에 모든 교육조건과 생활조건이 훌륭히 다 갖추어진 현대적인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에서 원아들은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활짝 꽃피우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원아들의 성장발육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사랑의 명령들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던가.

어느 한 인민군부대 수산사업소에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먹일수 있게 잡을데 대한 명령을 주신것도, 애육원 원아들에게 곶감도 먹이자고, 곶감을 육아원 원아들은 먹지 못하지만 애육원 원아들은 잘 먹을것이라고, 애육원 원아들에게 곶감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들에서 애육원 원아들에게 먹일 감과 곶감을 마련하여 보장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원아들을 위하여 내리신 명령.

정녕 이것은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사랑의 명령이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령도자의 이렇듯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덕과 정으로 결합된 사회주의대가정의 한 성원답게 부모잃은 아이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미풍이 나날이 꽃펴나고있으며 이것은 공화국의 국풍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본 한 해외동포는 이곳은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하면서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늘 보고싶어 여기에서 문지기라도 하고싶다고 하였다.

또 이곳을 참관한 어느 한 나라의 녀성은 《…부모없는 아이들이 이런 훌륭한 곳에서 살고있는것이 실로 놀랍다. 설사 친부모가 있다 해도 가난하면 불우한 운명을 면할수 없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이다. 이곳의 원아들은 다 천사들이다.》라고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천사들!

이 부름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만이 아닌 온 나라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세상사람 누구나 부러워하듯이 공화국의 모든 원아들은 이처럼 따사로운 해님의 사랑속에 기쁨과 행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진정 로동당시대의 귀동자, 귀동녀로 복된 삶을 누리는 원아들의 행복은 끝이 없다.

장애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며 배우고있는가

무릇 장애자라고 하면 불행의 대명사로 되여왔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보살펴주는 참다운 인간사랑이 꽃펴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장애자들 역시 국가의 특별한 관심속에 한점 그늘없이 마음껏 배우며 생활하고있다.

장애어린이교육, 장애자직업교육과 같은 특별한 교육조건과 환경속에서 배우면서 장애자들 누구나 보통사람들과 구별없이 희망에 따라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에는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자들이 사회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여러가지 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데 국가적관심을 돌리고 많은 사회적시책들을 실시하여왔다.

장애자보호사업은 공화국에서 해방후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친히 작성

하신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시여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영예군인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시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학생들의 학용품과 교복, 생활필수품과 의수와 의족을 무상으로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를 내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또한 그이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각지에 장애자들을 위한 영예군인공장, 경로동직장, 료양소, 롱아학교, 맹학교들이 꾸려졌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8년에 장애자보호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를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2003년 6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장애자들이 공부하는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리발, 미용, 피복, 식료가공, 목공작업 등 갖가지 재능을 배워주어 그들이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다양한 직종의 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보람차게 누려가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애자들도 희망과 소질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을수 있다.

특히 최근에 원격교육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장애자들의 배움의 열의가 높아지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속에서 장애자들도 원격대학에 입학하여 국가망을 통해 아무런 불편없이 전문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으며 대학졸업생들도 배출되고있다.

최근년간 장애자들을 위한 학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있는데 과학기술전당의 경우만 봐도 장애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열람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음성랑독프로그람과 손말학습프로그람이 설치되여있는 장애자열람실에는 전자열람용콤퓨터들과 맹인용콤퓨터를 비롯한 장애자용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장애자열람실은 장애자들이 쉽게 열람실로 오고갈수 있도록 특별히 출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따로 꾸려져있다.

장애자전용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이곳 열람실에서는 장애자들이 깊은 사색과 탐구속에 자료열람을 하고있다. 열람실에서 시각장애자들은 맹인용건반과 장애자프로그람이 설치된 전용콤퓨터에서 자료들을 음성으로 들으며 여러 봉사를 받고있다. 청각장애자들은 사서들과 손말로 대화하면서 필요한 방조를 받고있으며 장애자홈페지에 있는 손말동화상편집물을 통하여 학습을 하고있다.

열람실에는 또한 장애자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제작하여 설치한 걸상들과 맹인들이 리용할수 있

는 여러 분야의 책들을 구비한 서가를 비롯하여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장애자들을 위한 학습공간이 손색없이 마련되여있는 과학기술전당의 장애자열람실로는 하루에도 많은 장애자들이 찾아오고있다.

비록 신체상장애는 있어도 배움에서는 자그마한 장애를 모르는 행복한 이들이다.

덕과 정이 차고넘치는 공화국에서는 전사회적으로 장애자들을 차별없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적극 도와주는것이 하나의 기풍으로 되고있다.

수년세월 하루와 같이 운신하기 힘들어하는 장애어린이를 등에 업고 학교길을 오가던 고마운 선생님들, 앞 못 보는 장애자들의 눈이 되고 팔과 다리가 되여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과 하반신마비로 고통을 겪는 원아가 대지를 마음껏 활보할수 있게 자기의 온갖 정성을 다 바친 보건일군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땅에서 흔히 들을수 있는 무수한 미담들중의 일부이다.

이것은 모두 장애자들을 위한 참다운 시책이 안아온 응당한 결과이다.

공화국에서는 또한 조선롱인협회,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

애자예술협회를 비롯한 조직들과 관련기관들이 설립되여 장애자들의 건강회복과 사회활동,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다.

진정 공화국은 못난 자식, 병든 자식, 설음많은 자식모두를 차별없이 품에 안아 따뜻이 돌봐주는 사랑의 품이다.

공화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반향

《오늘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며 우리 후대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였습니다.

제가 사는 일본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한생을 고독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국에서는 우리 원수님 사랑속에 부모없는 아이들이 부모있는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우리 원수님처럼 위대하신분을 수령으로 모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허성희)

《북녘사회는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다든지 학교에 갈수없다는 말자체가 없는 사회이다.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초중, 고중, 대학교육에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대학에서는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

부한다.

교육제도 역시 세계 제1등이라고 말할수 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도 우월하지만 로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이 일하면서도 대학을 다닐수 있도록 공장대학, 농장대학 같은 시설들이 전 지역적으로 실시되고있어 배우려는 사람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무료로 공부할수 있는 사회가 북녘사회이다.

그리고 남녀로소 누구든지 예능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계발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여있기때문에 북녘동포들은 누구든지 노래를 잘하고 적어도 하나의 악기정도는 다룰줄 안다고 자랑하고있다.

유치원시기부터 수재교육도 실시하기때문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 박사원에 이르기까지 수재들이 많이 나온다. 과학수재들, 문예수재들, 예술수재들을 비롯한 다양한 수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그래서 북녘사회를 잘 아는 사람들은 교육천국이라고도 한다.》

(재미교포 리연미)

《이 세상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전

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는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

(영국조선친선협회 성명)

《조선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특징은 우선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한다는것이다.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국가정책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서방사회에서는 리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수없이 펼쳐지고있다.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등 온갖 형태의 교육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하고있다.

특징은 또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지향해나가고있다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이를 실행해나가고있다. 이처럼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조선은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며 전진하고있다.》

(베네수엘라인터네트홈페지
《엘 끌룹 데 라스 나씨오네스》)

《맑고 푸른 조선동해의 기슭에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국제사회의 각별한 시선을 끄는것은 단지 그 황홀함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희한한 현실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야영소에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모든것이 야영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것이다. 둘째로 다른 나라들 같으면 백만장자나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훌륭한 곳에 로동자, 농민, 탄부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 지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고있는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것이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로선과 정책의 구현이며 산물이라는것이다.

참으로 숭고한 후대사랑을 지니신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속에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천국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인터네트홈페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도 발전하였다.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조선에서의 모든 교육이 무료라는것이다. 도처에 꾸려진 교육기지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발전을 적극 추동해왔다.

오늘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르고

경제의 여러 부문이 최첨단기술로 장비되는 등 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선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의 교육이 어느만 한 수준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조선에서는 현재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으며 교육기관들을 도와주는 기풍이 확립되고있다. 이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사회의 일반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발전의 확고한 담보로, 뛰여난 인재들을 배출할수 있는 바탕으로 되고있다. 나어린 학생이 국제수학올림픽 3중금메달수상자로 된것을 두고 세계의 많은 교육자들은 조선이야말로 수재가 많은 나라,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캄보쟈의 아까뻬통신)

2. 인민적인 보건시책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공화국의 중요한 인민적시책이다.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다 가지고있으며 국가는 시종일관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아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병원, 진료소들이 꾸려져있으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인민적인 보건제도가 확립되였다.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보건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인민보건법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건사업을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인민적인 보건시책으로 인민들은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한생토록 무상으로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혜택을 받고있다.

인민적인 보건시책의 내용에는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가 있으며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할데 대한 시책도 있다.

지구상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인민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나라를 찾아볼수 없다.

세상에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공화국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료봉사망, 녀성의료봉사망, 고려의료봉사망 등 정연한 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 누구나 나이와 거주지, 직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치료를 받고있다.

외래치료, 입원치료, 왕진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는 물론 진찰, 실험검사, 기능진단검사, 수술도 100% 무료이며 료양소에 오고가는 려비도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의사가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보건일군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그뿐아니라 첨단기술에 의거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확립되여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환자가 중앙의 유능한 의료집단의 방조속에 신속히 치료받고있다.

어린이들이 세상에 태여나기 전부터 국가가 그 건강을 돌보아주고 영양제와 꿀도 공급하며 매 주민들에게는 병력서가 있어 건강검진도 정상적으로 받고있는것이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공화국의 보건시책이다.

이러한 무상치료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더 많이 가닿게 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최근년간에도 현대적인 병원들을 많이 일떠세우는것을 비롯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체109(2020)년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장에서 하신 연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무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됩니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모두가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면 우리 당에 그보다 더 기쁘고 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평양시안에 안과병원과 치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과 아동병원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이같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높은 리상과 포부에 비해볼 때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마음편히 오래 살려는것은 인류의 세기적숙망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란다고 하여 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근로자들에게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지 않고서는 그들이 누리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바로 공화국에서는 좋은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이 모든 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적으로 보장해주고있는것이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인민들이 병치료때문에 고통

을 당하고있으며 돈이 없으면 병원문전에도 가지 못하고있다.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해 1억명이상이 초보적인 의료봉사도 받지 못하여 각종 질병에 걸리고 로동능력을 상실한채 빈궁선이하에서 생활하고있다고 한다.

《경제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은 지불능력에 따라 치료를 받을수 있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수많은 외국인들은 이 땅에서 실시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인류의 리상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보건제도라고 격정을 토로하는것이다.

공화국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언제부터 실시되였는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인구의 절반이 아직 초보적인 의료봉사조차 받지 못하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병치료에 드는 비용때문에 극심한 빈궁에 빠져들고있다고 한다.

보건분야의 발전을 자랑하는 나라들에서조차 엄청난 치료비와 불합리한 의료체계 등 여러가지 난문제들로 하여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병없이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싶어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인간의 생명을 제일로 중시하는 가장 선진적인 보건제도하에서만이 실현가능한것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그러한 보건제도가 다름아닌 공화국의 전반적무상치료제이다.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사소한 차별도 없이 똑같이 의료혜택을 받고있다.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보건시책이 있어 사람들모두가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한생토록 무상치료, 예방치료의 혜택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깊은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인 1947년부터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8(1949)년 1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것은 인민들의 념원이며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생각하여온 문제라고 하시면서 물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면 국가의 부담이 커지는것만은 사실이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것은 돈보다 사람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국가의 재정적부담이 좀 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

기 위한 준비를 잘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1952년 1월 보건성 책임일군들에게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으며 11월에는 공화국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1960년 2월부터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

◁상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인민보건제도와 인민보건사업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며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절실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인민보건사업에 구현하시여 가장 우월한 인민보건법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은 1980년 4월에 채택되였으며 1999년 3월에 수정보충되였다.

인민보건법은 나라의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보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과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법전이다.

여 입원치료, 외래치료, 왕진치료, 진찰, 실험검사, 기능진단, 수술, 예방접종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와 료양의료봉사가 무료로 진행되고있다.

당과 국가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병원과 진료소 등 의료봉사시설을 늘이고 보건일군들을 수많이 양성하도록 하였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원만히 보장하고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현대적인 종합병원들과 전문병원들을 비롯하여 도, 시, 군, 리, 주요공장, 기업소들에 이르기까지 병원, 진

7개 장 51개 조로 되여있는 인민보건법에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보건의 기본원칙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상치료제의 내용과 공민의 권리,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와 실현방도, 의학과학기술발전과 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대책,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보건일군의 역할과 임무, 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에 이르기까지 인민보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과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제1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에서는 공화국인민보건사업의 성격과 그 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원칙들을 규정하고있으며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서는 모든 의료봉사가 완전히 무상이라는데 대해서와 무상치료제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였다.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에서는 예방의학이 사회주의보건의 중요임무라는것을 밝히고 생활환경과 로동조건, 로동보호물자와 영

료소 등 정연한 의료봉사기지들이 꾸려졌으며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제약, 의료기구생산기지와 고려약생산기지들이 마련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을 위한 무상치료제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으며 그 어떤 자그마한 의료봉사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물어야 하기때문에 빈곤계층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초보적인 의료상혜택도 받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목숨까지 잃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전반적무상치료제의 놀라운 현실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외국인사들은 한결같이 말하는것이다.

양제 특히 어린이영양제의 원만한 공급, 체육의 대중화 등 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규정하였다.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에서는 의학과학연구기관들을 잘 꾸리고 연구사업 특히 고려의학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는 의학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에서는 제약,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에서는 보건기관과 보건일군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체계와 내용, 인민보건사업보장을 위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임무, 인민보건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인민보건법이 채택됨으로써 공화국에서 보건은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으로, 우월성의 상징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자기 발전의 길을 계속 힘차게 이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선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인류의 리상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위대한 시책이다. 무상치료제는 조선의 참모습이며 조선의 보건제도는 세계적모범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 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전반적무상치료제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은 무엇인가

공화국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도시나 농촌이나 차이없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며 로동자, 사무원뿐아니라 협동농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라는데 그 본질적특성이 있다.

모든 의료봉사는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또한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등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도 무료이다. 해산방조도 무료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도 무료이고 료양을 위한 왕복려비는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하게 되여있다.

이밖에도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봉사도 무료로 받게 되여있다.

이 모든 의료봉사는 국가의 법으로 실행되고있다.

세계적으로 일부 나라들에 무상치료제가 있지만 그것은 건강보험에 의한 부분적이며 국한된 대상에 한한것이다. 다시말하여 건강보험에 든 사람들만이 받을수 있고 돈이 없어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은 생각할수도 없는것이다.

공화국에서처럼 국가가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환자접수로부터 시작하여 진찰, 검사, 입원치료, 약에 이르기까지 돈 한푼 받지 않고 봉사해주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인민들이 무상으로 의료봉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갖추어지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인민적인 보건시책, 전반적무상치료제가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되고있는 공화국은 모든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의료봉사를 받을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이 다 보장되여있다.

공화국에서는 도시와 농촌, 산업지구, 어촌, 림산마을에 이르기까지 행정단위인 리(동)를 단위로 하여 리인민병원과 진료소를, 구역(군)을 단위로 구역(군)인민병원을 배치하여 인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불편없이 치료받을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있고 현대적인 설비까지 그쯘히 갖춘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와 전문화된 치료예방기관들에서 모든 사람들은 필요한 의료상봉사를 마음껏 받고있다.

단적인 실례로 말단치료단위라고 할수 있는 농촌리의 진료소들까지도 병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고있다. 최근에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도입되고 더욱 완성되여 중앙과 각 도, 시, 군인민병원들사이에 수술협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신속정확히 하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모든 인민들이 언제 어디에서 그 어떤 병에 걸려도 제때에 그리고 병이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국가치료예방기관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보장받고있다.

몇개의 병원들을 실례로 들어보자.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갖추고 흠잡을데 없이 훌륭하게 꾸려

진 류경치과병원에서 인민들은 최상의 치료혜택을 받고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금속사기관보철치료는 이발한대당 100~1 000US$, 치과교정치료는 1 000~1 500US$, 치과임플란트치료는 1 000~5 000US$라고 하니 류경치과병원에서 인민들이 받는 국가적혜택만도 놀라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녀성들을 위한 현대적인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소에는 다목적렌트겐(70만US$), 유선촬영기(40만US$), CT(50만US$) 등의 최신설비들이 갖추어져있으며 녀성들속에서 유선암, 유선증을 조기적발하여 치료대책해주고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유선암검사에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하여 유선암검진을 해보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옥류아동병원에 가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화국이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의 압살책동이 집요하게 감행되고있던 때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값비싼 진단 및 치료설비들을 병원에 그쯘히 갖추어준 나라의 고마움에 온 나라 부모들은 심장의 인사를 드렸다.

그도 그럴것이 심장수술시에 사람의 심장과 페를 대신하는 옥류아동병원의 인공심페기는 그 값이 수십만US$에 달하며 사람의 피속에 들어있는 페하와 산소 등을 측정하는데 쓰이

는 혈액가스분석기나 인공호흡기의 값은 각각 수만US$나 되는것이다. 그리고 뇌혈관과 심장혈관기형 등의 진단과 치료에 리용되는 혈관조영촬영기와 다목적렌트겐촬영기의 값은 수십만US$이며 CT설비는 물론 각종 초음파진단기들과 내시경을 비롯한 치료설비들의 값을 모두 종합해보면 그 액수는 그야말로 엄청나다.

일반적으로 병원들에서 심장수술을 하려면 인공심폐기를 비롯한 치료설비들과 함께 인공페장기와 동맥려과기 등 여러가지 의료용소모품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심장수술을 할때 리용하는 의료용소모품들은 한번밖에 쓰지 못한다.

한번의 심장수술에 리용되는 의료용소모품들의 값을 합치고 여기에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진단비, 약값 등을 모두 합치면 수술을 필요로 하는 심장병환자인 경우 그 치료비가 무려 수천～수만US$나 된다.

그러나 옥류아동병원에서는 다른 나라들 같으면 엄청난 치료비로 하여 엄두도 내지 못할 세계적수준의 심장수술을 전부 무상으로 해주고있는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옥류아동병원의 심장혈관외과에서 진행하는 심장수술건수는 한해에 평균 300건이나 된다.

옥류아동병원이 개원후 오늘에 이르는 나날 천수백명의 아이들에게 심장수술을 하였다니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보면 천문학적액수에 이르게 된다.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가 이렇듯 막대한 품을 들여 병원을 건설하고 최상급의 치료조건을 보장해주는 옥류아동병원의 현실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월한 보건제도하에서만이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이밖에도 공화국의 보건부문에서는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의 자립화, 현대화문제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모든 제약공장, 의료기구공장들을 세계적발전수준에 맞게 현대적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있으며 실지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국가는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에 의하여 인민보건사업을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강령적인 지침들이 마련되고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병원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제약공장, 의료기구공장들이 제약, 의료기구공업의 표준으로 전변되여가고 온 나라 치료예방기관들의 면모가 일신되고있다.

그런 속에 지난 3월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였으며 그 건설이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여가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인민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완

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국책으로 틀어쥐고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절세위인의 의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진정 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모두가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노력은 끝이 없다.

❖위인일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이 관심하신 주사바늘

주체89(2000)년 12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대동강주사기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중앙홀에 전시된 시제품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곳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한동안 주사바늘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바늘이 좀 굵다고, 주사바늘이 굵으면 주사를 맞을 때 아플수 있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주사기공장에서는 주사바늘

을 잘 만드는것이 기본이라고, 주사바늘을 잘 만들어야 환자들에게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늘을 어떤 소재로 만드는것이 좋은가 연구해보고 주사바늘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웅심깊은 사랑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우리가 만든 주사기가 괜찮다고 기뻐하면서도 주사바늘의 굵기와 주사를 맞을 때 환자들이 느낄 아픔에 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관심을 돌린 일군은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느끼게 될 주사바늘에 의한 아픔을 덜어주시려고 그토록 깊이 마음쓰시는것 아닌가.

이날 공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부터 자신께서 이 공장에서 생산한 주사기를 사용하시겠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크고작은 일 따로없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열화같은 사랑에 일군들의 눈굽은 쩌릿이 젖어들었다.

고려약생산을 위한 특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강계고려약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제품진렬실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약을 만든 공장은 달라도 같은 약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야 하며 이름이 같은 약은 그 조성이 같아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의 마음속에 경탄의 물결이 출렁이였다. 이 얼마나 명백한 리치인가. 만약 같은 고려약도 생산한 공장마다 저마끔 이름과 조성이 다르다면 환자들이 얼마나 약을 쓰기 불편해할것인가.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려약은 먹는 량이 많아 환자들이 먹기 힘들어하는것이 문제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고려약은 엑스형태로 만들어야 먹는 량이 적어지므로 환자들이 먹기 좋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사실 고려약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약초를 채취하여 말리운 다음 가루를 내여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알로 빚어 리용하는것으로만 알려져있었다. 그러다나니 고려약은 한번에 쓰는 량이 많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도 응당한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인민의 건강증진을 두고 늘 마음써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고려약의 일부 불합리성을 대번에 헤아려보시며 사람들이 먹기에 편리하도록 고려약을 만드는 방법까지 깨우쳐주시는것이였다.

진정 그날의 가르치심은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사색을 거듭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고려약생산을 위한 특강이였다.

왜 사회주의의학을 가리켜 예방의학이라고 하는가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먼저 찾아가 예방대책을 세워나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인민적보건정책은 병치료의 권리와 요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서뿐아니라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시책에서 더욱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55(1966)년 10월 20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에서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 다시말하여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이라고, 그러므로 사회주의의학은 곧 예방의학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밝히시였다.

예방의학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복무하는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을 이룬다.

공화국의 예방의학제도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의학적대책을 세움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는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제도를 공고발전시킨다.》라고 규

제되여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이로부터 로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을 대상하여 예방주사를 한번 놓아주자고 하여도 돈이 많이 든다고, 당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만큼 전민을 위한 예방치료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과 국가는 인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그러나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의학이 하나의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전반적근로자들을 위한 예방의학을 내세울수 없다.

예방의학은 오직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방의학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차이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위인일화❖

투자를 아끼지 말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건산소공장건설현장을 찾으시였던 그날은 몇해전 5월의 어느 일요일이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료용산소생산을 위해 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일요일의 휴식마저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그러나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의 세계가 얼마나 크나큰것인가를 미처 다 알수 없었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벌써 공장의 체모가 안겨온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일군들에게 보건산소공장을 세계에 둘도 없는 공장으로 건설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공장건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자면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기지를 나라의 여러 지역에 일떠세울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투자를 아끼지 말라!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돌우에

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위인일화❖

성스러운 투쟁

주체107(2018)년 1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약공장은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약품을 생산하는 곳이므로 최상의 위생조건과 환경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의약품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인민적 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물질적기초이며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자면 평양제약공장을 더욱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제약공장의 개건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생산

을 늘이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이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페부로 느끼도록 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이렇듯 웅심깊고 자애로운것이다.

예방의학제도의 우월성은 무엇인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은 예방의학적방침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삶을 누리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서 무병장수하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시켜주는 참다운 인민적시책이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먼저 찾아가며 예방대책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보건제도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준다.

예방의학제도의 우월성은 우선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들이 예방사업과 건강관리사업에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공화국에는 위생선전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수립되여있다. 그

특징은 위생선전사업이 인민들을 예방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시켜나가는 전인민적, 전사회적사업으로 진행되고있는데 있다.

위생선전체계는 보건부문의 전문적인 위생선전체계와 대중위생선전체계로 구성되여있다.

각 도들에서 보건행정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이 책임지고 도위생선전관을 조직운영하고있으며 시, 군(구역)위생방역소에서는 해당 지역 보건기관들의 위생선전사업을 장악지도하고있다. 특히 리인민병원과 종합진료소, 진료소들의 호의사담당제사업에서 위생선전사업을 잘하도록 조직적으로 장악지도하고있다.

공화국의 모든 보건일군들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임무를 지니고있으므로 위생선전사업을 자기의 의료봉사 및 예방활동의 첫 공정으로, 정상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있다. 담당한 동, 인민반세대들과 기관, 기업소에서의 위생선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여 없애며 발생하는 질병을 제때에 치료하도록 하고있다.

예방의학제도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전인민적위생문화사업과 환경보호사업에 의하여 질병예방의 조건이 원만히 마련되는데 있다.

공화국에서는 질병예방과 인민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거두며 문화후생시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가

틀어쥐고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공화국에는 강력한 위생문화사업지도검열체계가 확립되여있다. 1995년 2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당시)은 결정 제6호로 《위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중앙위생지도위원회는 전염병과 기생충질환을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전염병이 많이 퍼질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내각의 지시에 따라 비상방역위원회로 활동한다.

공화국의 예방의학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전염병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방역사업이 강화되여 세계적으로 퍼지는 전염병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일상적으로 청소와 소독사업을 잘하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가정과 직장, 거리와 마을의 청소와 사람들의 개체위생, 위생시설의 보장 등에 의하여 전염병의 병원체가 사람의 몸안에 들어오는 모든 길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고있다.

이뿐아니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전체 주민 또는 어린이 그리고 지역에 해당하여 예방약을 무상으로 보장하고있다. 또한 전염병환자와 보균자와 접촉자들은 철저히 격리시켜 전염원의 전파

를 제때에 막아내고있다.

공화국의 예방의학제도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비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원식의료봉사방법이 적용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위생방역기관에서만이 아니라 의료봉사기관들에서도 질병예방에 중심을 두고 사업하고있다. 만성전염성질병뿐아니라 비전염성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예방원식의료봉사방법을 적용하고있다.

예방원식의료봉사는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만일 병이 생기면 가장 빠른 시기에 찾아 등록하고 완치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없애는 의료봉사방법이다.

예방원식의료봉사방법의 첫 공정은 질병의 예방대책이며 두번째 공정은 질병의 조기적발이고 세번째 공정은 질병에 대한 등록사업을 잘하고 체계적인 관찰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세우는것이다.

이와 같이 예방원식의료봉사는 질병의 예방치료사업을 단계별로 과학성있게 진행하여 질병과의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질병을 제때에 철저히 예방치료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의료봉사방법이다.

현실에서 예방의학제도의 우월성이 어떻게 나타나고있는가

당과 국가는 시종일관 예방의학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보건사업에 투자하고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싸스, 조류독감, 에볼라, 메르스 등 새로운 급성전염병들이 만연되여 사람들이 무리로 생명을 잃는 참사를 빚어내고있다.

2003년에만도 싸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32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8 439명의 감염자와 900여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2015년에는 새로운 죽음의 전염병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하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세계적인 급성전염병들을 막기 위한 정연한 통보체계를 세우고 주민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위생선전사업과 함께 검병, 검진, 소독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이 이러한 전염병을 모르고 건강하여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참으로 공화국의 예방의학제도야말로 사회주의제도에서 아무 근심걱정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무병장수하려는 인민의 념원을 실현시켜주는 참다운 인민적시책이 아니겠는가.

의사담당구역제는 어떤것인가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의 가정세대주민들을 고정담당하여 일상적으로 건강관리와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제도이다.

인민적인 보건시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우월한 보건제도이다.

인민보건법에는 《국가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공고발전시킨다.》고 규제되여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지 몇해 안되는 1948년에 벌써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1961년 9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시, 군 인민병원들과 리진료소들을 늘이고 거기에 의사들을 많이 배치하여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가까운 시일안에 실시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그리하여 인민적인 예방의학적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전국적범위에서 확

립되게 되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도시나 농촌이나 할것없이 근로자들이 일하며 살고있는 모든 곳에 치료기관과 의료일군이 있으며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의 기본조직형태는 의사들이 일정한 수의 주민세대를 담당하는 의사호담당제이며 직장(갱)의사담당제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배합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의사담당구역제를 가정세대(호)를 담당하는 거주단위의 담당제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단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근로자들이 거주단위는 물론 생산단위에서도 제때에 의료봉사를 받게 하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재미교포를 만나신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가 인구사망률이 제일 낮은데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여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의사담당구역제를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지침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보건부문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의사대렬을 늘이고 담당세대수를 줄여나가며 의사들이 담당세대주민들에 대

한 건강관리에 전심전력하도록 모든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6년 5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보건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할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장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백살장수자들이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고 감격에 겨워하는 화폭들이 펼쳐지고있다.

2020년 새해에 들어와 두달사이에만도 7명의 백살장수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이처럼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됨으로써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다 담당의사의 책임적이며 체계적인 방조밑에 일상적으로 건강보호를 받고있다.

호담당의사들의 하루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며 그들은 자기의 본분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우리 공화국에는 북변의 외진 산골마을로부터 자그마한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인민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친근하게 불리우는 호담당의사들이 있다.

의사담당구역제에 따라 호담당의사들은 자기들이 담당한 구역의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필요한 예방과 치료대책을 세워 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뿐아니라 병을 제때에 치료할 본분을 지닌 의사들이다.

여기에 인민적인 보건제도를 노래한 가요가 하나 있다.

…
똑똑똑 누가 누가 문을 두드리나요
문여니 방긋 웃는 의사선생님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고마워요 내 나라 내 조국 사회주의
병원이 환자를 찾아가는 내 나라는 고마워요
…

노래에도 있듯이 진료소 호담당의사들의 하루일과는 환자치료와 검병, 검진, 위생선전과 예방치료 등으로 흘러간다. 이밖에도 그들은 담당구역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전쟁로병들, 장수자와 늙은이, 임산모 등에 대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구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차적인 구급대책을 취한다.

이 땅 어디에서나 호담당의사들은 조선로동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

이 돌보아주고있다.

언제인가 난치성질병치료에서 큰 성과를 거둔 룡산리인민병원을 돌아본 세계보건기구 성원들은 훌륭하고 깨끗한 병원에 대해 거듭 감탄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다름아닌 그 산골병원의 재능있고 실력있는 원장이 평양의학대학 졸업생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당신은 왜 이 산골병원에 있습니까? 도시보다 월급이 더 높습니까?》

이 물음에 원장은 국가가 전체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예방의학에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나라의 모든 리들을 병없는 리, 온 나라를 무병장수의 나라로 만드시려는것은 우리 수령님들의 념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도 스스로 산골마을병원을 지키고있습니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조선에서는 담당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에게는 돈많은자들이나 둘수 있는 담당의사를 평민들이 무료로 두고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리해되지 않을것이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호담당의사.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에서 언제나 례사롭게 들리는 이 부름에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 비껴있는것이다.

〔일화〕

한 동포의 놀라움

여기에 수십년전 자본주의제도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한 동포가 쓴 수기 한건을 그대로 옮긴다.

《내가 광복거리에 새 집을 받고 이사한 다음날 아침이였다. 초인종소리를 듣고 나가보았더니 처녀의사 한분이 찾아왔다.

<누구신지요?>

<여기 진료소 의사입니다.>

<우린 의사선생을 청하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대화가 이쯤되였을 때 이상한 기미를 느낀 안해가 나왔다. 안해는 의사선생을 반겨맞으며 방으로 안내하였다.

나는 속으로 안해가 알고있는 의사선생인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는 우리 진료소의 담당의사로서 나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온것이였다.

그는 표지에 <건강관리부>라고 쓴 책에다 나의 건강상태를 하

나하나 적어나갔다. 나는 그런 일을 처음 당하는지라 무슨 영문인지 통 알수 없었다.

<의사선생님, 저는 원래 건강한 사람인데 그걸 기록해서 무얼 합니까?>

<우리 나라에는 의사담당구역제라는 인민적인 의료봉사제도가 세워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주민구역안의 세대들을 고정적으로 맡아가지고 예방치료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 집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는 주민들은 누구나 다 태여나서부터 건강관리부가 있게 되고 담당의사는 일상적으로 매 가정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건강관리부에 기록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며 병이 나면 제때에 치료해준다고 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나에게 있어서 또다시 이상한것은 돈을 내라는 말이 없는것이였다.

나는 공화국에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왕진비 같은것은 내야 되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안해에게 물었더니 공화국에서 실시하고있는 무상치료제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무상치료제이기때문에 왕진비도 없다고 했다.

(과연 이게 사실인가.)

나는 정말 믿을수가 없었다.

내가 다시 그러면 수고로이 찾아온 의사선생님에게 얼마간의

사례금이라도 주어야 도리가 되지 않겠는가고 했더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사례금 같은것을 받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피와 살, 뼈까지 환자치료에 바친다고 했다.

실로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말뿐이였고 놀랍기만 했다. …》

산전산후휴가기간에 녀성들은 어떤 의료상혜택을 보장받는가

공화국에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를 위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녀성근로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제를 실시하고있다.

산전산후휴가제는 임신한 녀성들이 해산을 전후로 하여 집중적으로 쉬게 하여 그들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임신초기부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는 공화국의 녀성들은 임신(8개월), 해산이라는 조건만 성립되면 그해 정기 및 보충휴가에 관계없이 산전산후휴가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권리는 근속로동년한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녀성들은 산전 60일, 산후 180일 모두 24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이 기간에 녀성근로자들은 로동년한에 관계없이 자기가 받던 기본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산전산후보조금을 받는다.

해산시에는 복잡한 수술과 해산방조를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전문의료일군들의 방조속에 무료로 받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산전산후휴가기간이 끝나면 녀성들이 자기가 일하던 직장과 직종에 아무런 제한조건없이 그대로 들어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만일에 산후휴가를 마친 다음에도 본인이나 아이의 건강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해당 급수의 식량을 공급받는 휴직을 받게 된다.

또한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은 녀성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세워져있다.

국가는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주며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여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젖제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두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별도로 세쌍둥이를 비롯한 13살미만의 어린이 3명이상을 가진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시간은 6시간이다. 공화국에서 기본로동시간제도가 8시간인것으로 놓고볼 때 이것은 녀성들에게 돌려지는 상당한 혜택으로 되는것이다. 또한 일정하게 정

해진 고정된 금액으로 특별보조금을 매 아이가 고급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정상적으로 주고있다.

공화국에서 녀성들에게 돌려지는 산전산후휴가제의 사회적 혜택은 어제오늘에 마련된것이 아니다.

나라가 갓 해방되여 모든것이 어렵고 복잡하였던 시기에 벌써 새로 조직되는 인민병원들에 산부인과시설들이 꾸려지고 임신부들에 대한 해산방조가 진행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시기 한사람의 전시로력이 긴장한 때에도 임신한 녀성과 한살아래의 어린애를 가진 녀성들에게는 시간외 로동과 야간로동을 시키지 말며 산모를 특별히 보호할데 대한 국가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후 녀성농민들에게도 사회적부담에 의한 산전산후휴가제가 실시되였다.

이렇게 훌륭한 시책으로 하여 공화국의 녀성들은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있다.

공화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녀성들과 많은 나라의 녀성들이 공화국녀성들을 부러워하는것은 결코 우연함이 아니다.

하기에 얼마전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민주꽁고와 아일랜드의 녀성인사들은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밝힌것이다.

《오늘날 행성의 곳곳에서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인 조선에서는 녀성

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남녀평등을 위한 국제법적규범이 현실화된 나라에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혜택속에 부러움을 모르고 사는 녀성들이 바로 조선녀성들이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이 로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발전권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녀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녀성들은 평양산원을 왜 《친정집》이라고 부르는가

1960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나라의 모든 임신부들에게 무상으로 해산방조를 줄데 대한 중요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그후 녀성들의 해산 및 산부인과치료를 전문으로 할수 있도록 현대적인 설비와 의료시설을 갖춘 평양산원이 세워졌다.

평양산원은 녀성들에 대한 해산방조와 부인병치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전문과적인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종합병원이다.

평양산원은 산부인과분야의 전국적인 치료예방사업과 기술

방법적지도, 과학연구사업과 림상교육 및 후비양성사업을 통일적으로 맡아하는 표준화된 대규모의 산원이다.

평양산원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인민들에게 마련하여주신 사랑의 선물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평양산원은 1980년 3월에 완공되여 7월 30일부터 개원하였다. 건설될 당시 평양산원의 건축면적은 1만여㎡이고 연건평은 6만여㎡였다.

중앙홀에는 수많은 구슬을 단 커다란 무리등과 온 세상사람들이 보석주단이라고 부르는 천연보석바닥이 펼쳐져있다.

아름다운 색보석들이 촘촘히 박혀 무늬를 이룬 이 보석주단을 평범한 근로녀성들이 귀여운 아기를 안고 밟으며 산원을 나서는 광경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평범한 어머니들과 녀성들을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깔아주신 평양산원의 보석주단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민사랑의 이야기이다.

하기에 평양산원을 참관하는 외국의 인사들은 공화국의 녀성들이야말로 보석주단을 밟고있는 《억만장자들》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것이 아닌가.

외국의 한 인사는 현관홀의 보석주단을 넋없이 들여다보다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이 값비싼 보석을 애기어머니들이 밟고 다닌다니 정신을

앓을 지경입니다. 보석을 밟고 다니는 조선인민이 부럽습니다. 세상에는 백성들이 나라님의 발밑에 진주보석을 깔아드렸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나라님이 백성들의 발밑에 진주보석을 깔아주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말 **김정일**각하는 인민의 위대한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산원이 개원된 때로부터 수십년세월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산꿀, 곰열, 록태고, 잣을 비롯한 보양제들과 영양식품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였으며 세쌍둥이들에게는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2012년에 온 세상의 녀성들이 부러워하는 평양산원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유선질병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 과학연구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꾸려진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유선종양연구소가 새로 건설되여 개원되였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유선질병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의료봉사 및 과학연구기지이다. 유선종양연구소에는 유선촬영실, 렌트겐촬영실, 항암치료실, 물리치료실, 초음파실, 수술장을 비롯한 진단 및 치료실들과 입원실, 연구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이렇듯 평양산원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대규모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언제인가 평양산원을 찾았던 어느 한 나라의 기자는 평양산원을 다 돌아보고나서 산원일군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 지금 여기서 태여나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문을 몰라하는 산원일군들에게 그는 말하였다.

— 내가 사는 나라에서 태여나는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자기가 어떤 빚을 지고 사는가 하는 울음소리갈다면 조선에서 태여나는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는 자기가 이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가 하는 울음소리같다. 당신들은 너무도 큰 행복속에 살기때문에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할것이다.

새 생명이 터치는 울음소리에 대한 형상적인 표현이였지만 그 말이 새겨주는 의미는 참으로 큰것이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갓 태여난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그대로 불행과 시름의 전주곡이나 다름이 없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녀성들은 해산하면 다음날로 퇴원시키지만 평양산원에서는 해산후 5～7일간 산모와 아기들을 돌보아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궁적출, 절개해산수술 등의 산부인과수술은 평균 10 000US$이상이며 어떤 환자들은 수술을 받고도 치료비때문에 병원에 있지 못하고 점적병을 단채 거리에서 지내는 일이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엄청나게 높은 해산비, 치료비를 물수가 없어 낳은 애기마저 버리는 사람 못살 세상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대로 혈육의 정마저도 깡그리 앗아가는 사회에 대한 통탄의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평양산원, 진정 그것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것이다.

하기에 오늘도 공화국의 모든 녀성들은 누구나 다 평양산원을 자기들의 《친정집》이라고 정답게 부르는것 아닌가.

최근 공화국에서 녀성들이 받고있는 선진적인 의료봉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공화국의 평양산원에서는 녀성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여 산모들의 해산과 녀성질병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양산원에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리용하여 녀성들에게 여러가지 선진적인 의료봉사들을 진행하고있다.

특히 녀성들이 해산시 아픔을 느끼지 않고 능동해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무통해산봉사를 모든 녀성들에게 진행하고있다.

세계적으로 음부신경차단마취에 의한 무통해산, 여러가지 약물을 리용한 경막외마취에 의한 무통해산 등 여러가지 무통

해산방법이 도입되고있다.

산원에서도 현재 모든 산모들에 대한 무통해산을 진행하고 있다. 무통해산법을 도입한 결과 환자들이 아픔을 현저히 느끼지 못하고 능동적인 해산을 진행하고있다.

의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 일부 나라들에서도 부유층의 녀성들이나 받을수 있는 무통해산봉사를 평양산원에서는 모든 산모들에게 무상으로 봉사해주고있는것이다.

언제인가 평양산원을 찾은 어느 한 나라 대표단은 지방의 병원들에까지 현대적인 의료설비를 갖추어놓고 모든 녀성들에게 무통해산방조를 한다고 하는 평양산원 의사들의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사람당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고, 조선은 부유한 나라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만한 지불능력이 있는가고 물어보았다.

국가적혜택으로 무상치료봉사를 한다는 대답을 들은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도 있는가고 하면서 감탄하였다고 한다.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아니고서야 평범한 녀성들이 어찌 이런 선진적인 의료봉사에 대해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서는 세계적발전추세로 되고있는 혈관인터벤션기술로 녀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고있다.

혈관인터벤션기술은 혈관조영설비를 리용하여 혈관안에 조

영제를 넣어 얻어지는 화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평양산원에서는 녀성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현대적인 혈관조영설비를 리용하여 산부인과 혈관인터벤션기술인 동맥전색술을 근종과 선근증치료에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수술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돈을 내야 하므로 평범한 근로녀성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아무런 부담없이 받고있는 우리 녀성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녀성들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녀성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을 국가가 어떻게 키워주는가

무릇 사람들은 육아원, 애육원이라고 하면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원아들의 사랑의 집으로 훌륭히 일떠선 공화국 각지의 육아원,

애육원들에는 부모있는 아이들도 있다. 그들이 바로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세쌍둥이와 네쌍둥이가 태여났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마다 그리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가슴 한가득 안겨주시였고 그들을 위한 양육조건을 잘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배려로 평양산원이 일떠선 이후 공화국에서는 수많은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이 태여나 나라의 경사로 만사람의 축복을 받고있다.

국가에서는 세쌍둥이, 네쌍둥이임신부로 확진되면 그가 누구든 평양산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해준다. 그리고 평양산원에 입원한 때로부터 그들에게 매일 영양제를 공급해준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으면 국가에서는 일정한 기간 보약제로 건강을 회복시킨 다음 산모를 퇴원시키며 그들의 자식들은 몸무게가 4kg이상 될 때까지 평양산원에서 맡아 키워 해당 지역의 육아원으로 보낸다.

낳아준 부모들은 차를 달려 잠간이면 가닿을 거리에 있지만 아이들은 육아원에서 국가의 사랑과 보살핌속에 튼튼하게 자라난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에게는 수년세월을 고정적으로 맡아 그들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담당보육원들이 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의 수가 늘어나면 소아병원의 유능한

의료일군들이 육아원으로 림시 조동되여 그들의 건강을 낮과 밤이 따로없이 돌보아준다.

국가는 원아들과 함께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에게 매일 고기와 물고기, 남새, 과일, 당과류 등을 나이별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급해준다.

이렇게 만 4살에 이르게 되면 부모들의 곁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국가는 그들에게 원래 그들이 쓰고살던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 갖가지 가구들과 생활필수품들을 그쯘히 갖추어 배려하여준다.

집에 돌아와서도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의 건강과 보육은 해당 지역 진료소의 담당의사들과 탁아소의 보육원들이 맡아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어머니는 아무런 불편없이 자식들을 키우게 되는것이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을 국가가 돌보아주는 전설같은 사랑의 력사의 첫 갈피에는 1947년 7월 어느날이 전하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새겨져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순간의 휴식마저 잊고 사업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한 일군으로부터 강동군 승호면(당시)에서 세쌍둥이가 태여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게 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보시던 문건들을 밀어놓으시고 세쌍둥이가 출생하였다고 하는데 아

주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이번에 출생한 세쌍둥이가 잘 자라서 나라의 동량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하시며 세쌍둥이를 잘 키우고 산모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먼 옛날도 아닌 두해전이라면 나라가 없는탓에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을 세쌍둥이와 산모였다. 이런 세쌍둥이와 산모에게 의사와 간호원을 붙여주도록 하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세쌍둥이의 양육에 필요한 영양제와 옷과 포단까지 보장해주도록 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세쌍둥이가 출생하면 아이들과 산모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특별히 돌봐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세쌍둥이를 나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키워주는 전설같은 사랑의 력사는 이렇게 해방조선의 세쌍둥이들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였다. 이때부터 공화국에서는 장장 70여년간 수많은 세쌍둥이들이 당의 커다란 관심과 뜨거운 사랑속에 태여나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받아안으며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났으며 오늘도 자라고있다.

장애자들의 회복치료를 위해 국가는 어떤 혜택을 베푸는가

공화국에서는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것을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내세우고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치료하고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을 극력 방지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제시하고있으며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한 장애자회복치료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장애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회복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료양소들이 방방곡곡에 세워져있다.

흔히 기능장애에 대한 회복치료라고 하면 로력과 자금이 많이 드는 치료로 알려져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기능회복치료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대중은 치료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장애자들은 훌륭하게 꾸려진 치료봉사기지들에서 무상으로 기능회복봉사를 받고있다. 료양치료뿐아니라 료양소에 오고가는 왕복려비까지도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2013년 평양시 문수지구에 일떠선 현대적인 문수기능회복원은 장애자들에게 종합적인 봉사를 제공하고있다.

운동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물치료 등 포

괄적인 치료를 받을수 있는 종합적인 치료기지로 꾸려진 문수기능회복원.

이곳의 치료실들에는 다목적렌트겐, 심폐기능검사기, 3차원심장초음파진단기, 뇌파기를 비롯한 치료설비들이 구비되여있을뿐아니라 달리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를 비롯한 각종 운동치료기재들도 설치되여있다.

물치료실만 놓고보아도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기능치료의 력사가 오래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보통사람들은 리용할수 없는것으로 인식되고있다.

이렇듯 훌륭하고 현대적인 기능회복원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기능회복치료를 받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이곳을 돌아본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이런 훌륭한 의료봉사기지를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리용하고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기능장애자들을 위하여 국가가 이렇듯 훌륭한 치료 및 봉사기지를 꾸려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며 공화국의 인민적보건시책에 찬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진정 병든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나라의 모든 장애자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주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반향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와보니 느끼는바가 크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보건분야에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물질문화생활보장이 국가적관심사로, 제일중대사로 되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웅장하게 일떠선 병원들의 설비들 하나하나가 매우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료기술수준도 대단히 높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러한 병원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것이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아프리카의 한 정부대표단 단장)

《인류가 오래전부터 갈망하여온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하려던 소망이 조선에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이것이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인민적보건시책이다.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이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일떠섰으며 공장, 기업소는 물론 산골마을과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병원, 진료소들이 꾸려져있다.

어린이와 애기어머니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국가적혜택이 돌려지고있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인터네트홈페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보건사에 류례없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헌법에 무상치료를 받는것을 공민의 기본권리의 하나로 규제하였다.

조선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료봉사망, 녀성의료봉사망, 고려의료봉사망 등 정연한 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 누구나 나이와 거주지, 직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치료를 받고있다.

외래치료, 입원치료, 왕진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는 물론 진찰, 실험검사, 기능진단검사, 수술도 100% 무료이며 료양소에 오고가는 려비도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의사가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첨단기술에 의거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확립되여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환자가 중앙의 유능한 의료집단의 방조속에 신속히 치료받고있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 인터네트홈페지)

《우리는 이렇듯 훌륭하고 현대적인 산원을 돌아보면서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조건에서 해산하고 훌륭한 조건을 산모들에게 보장하여준다는것은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이 꿈에서나 상상할수 있는것입니다.》

(벨지끄 《조선은 하나다》련대성위원회 성원)

《이런 훌륭한 병원을 방문하면서 정말 감동이 큽니다. 저는 로씨야의 치과병원들에서 치료를 많이 받아왔지만 이렇게 현대적이고 편리한 치과치료설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조선의 령도자께서 인민들의 생활을 세심히 관심하시고 보살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씨야체육선수)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의사들이 찾아와 치료활동을 벌리는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국가가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실시하는것만도 크나큰 혜택인데 평양산원을 비롯한 큰 병원의 의사들이 현장치료대를 뭇고 나와 로동자들의 건강을 돌봐주고있으니 조선이야말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는 나라이다.

나는 속탈로 여러해동안 고생하고있지만 치료받자면 돈이 엄청나기때문에 아직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조선의 로동자들은 정말 행복하다.》

(중국 단동홍관과학기술유한공사 기술원)

3.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시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시책은 인민적시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또는 완전히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서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의 혜택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당과 국가의 혜택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은 보호증진되며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들

에게도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다.

사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생활상불편을 겪는 장애자들, 년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충분한 생활조건을 보장받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공인된 합법적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방조, 필요한 사회적봉사를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리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와 실업, 병약, 로동능력상실, 배우자상실, 고령 혹은 감당할수 없는 환경들에서 생활수단들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규제되여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마다 다르다.

세계적으로 놓고볼 때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복지》, 《문명》에 대해 떠드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돈이 자리잡고있다. 돈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지되는 사회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나 정은 한갖 꿈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와 함께 사회보험제, 사회보장제가 있어 모든 근로자들이 휴식과 건강을 보장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일찍부터 부모없는 아이들과 장애자들, 년로

자들을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는것이 국책으로, 하나의 사회적미풍으로 간주되여왔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의 극진한 관심과 보살핌속에 누구나다 인간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궁궐같은 육아원, 애육원들이 일떠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워주는 미덕의 주인공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으며 장애자들이 차별을 모르고 건강한 사람들과 꼭같이 평등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년로자들이 사회의 존경과 사랑속에 청춘의 활력을 되찾고있으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양로원들에서 보양생들이 인생말년의 복락을 누리는가 하면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의 친자식, 친혈육이 되여 여생을 따뜻이 돌봐주는 가슴뜨거운 소행들이 평범하고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으로 그들의 얼굴마다에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고 그와 더불어 사회전반이 나날이 젊어지고 더욱더 밝아지고있다.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휴양소와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큰 힘이 돌려지고있다.

공화국의 사회보험제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보험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공화국에서 사회보험의 혜택은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뿐아니라 협동적소유에 망라된 모든 근로자들도 다 받을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수백만 근로자들이 돈이 없어 보험에 들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사회보험대상으로 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을 사회보험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사업비지출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은 휴양소, 정양소, 야영소를 비롯한 국가사회보험기관들에서 막대한 혜택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문화휴식을 보장받고있다. 국가에서는 기본건설투자로 경치좋고 물좋은 명승지들에 휴양소, 정양소, 야영소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보험기관들을 건설하여놓고 그것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문화휴식터로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다.

실례를 들어 1946년 12월 사회보험법이 발포될 당시 12개

의 휴양소가 조직되였다면 2016년초까지만 봐도 명승지와 경치좋은 곳마다에 건설된 휴양소와 정양소들이 수백개나 되며 여기서 해마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정휴양혜택을 받고있다.

정휴양기간과 야영기간에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은 식사비를 비롯하여 모든 문화생활조건에 대한 비용을 무료로 보장받으면서 아무런 근심없이 즐거운 휴식을 보내고있다.

국가에서는 정휴양소들과 야영소들에 진료소를 비롯한 보건시설들을 꾸리고 여러가지 자연치료법을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시책을 실시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손길에 의해 나라의 모든 휴양소, 정양소들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여 근로자들이 보다 훌륭한 조건과 환경에서 충분하고도 즐거운 휴식을 누리고있다.

당과 국가는 나라의 경제력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되는데 따라 국가예산에서 사회보험에 지출되는 자금을 끊임없이 늘이고있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

근로자들이 정휴양제를 통해 받는 혜택은 어떤것들인가

정휴양제는 국가가 정양소와 휴양소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여주는 제도이다.

근로자들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으로 마련된 정휴양제에 의하여 안전하고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있다.

휴식은 공민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며 휴식의 권리는 국가부담에 의한 정휴양제와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우리는 조국을 하루빨리 해방하고 경치좋은 곳마다에 휴양소를 세워 근로자들이 휴식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되자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의 별장, 유흥지들을 인민의 휴양지로 개편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명승지와 온천, 약수터 등 곳곳에 새로운 휴양소들을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공장, 기업소들에 야간휴양소들을, 전선지구에는 군인들을 위한 화선휴양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시기에 파괴된 휴양소들을 복구개건하는것과 함께 새로 더 건설하도록 은정어린 조

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휴식을 위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휴양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휴양소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삭주지구와 석왕사지구에 휴양소들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신데 이어 금강산에 본보기휴양소를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세심한 지도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앞으로 근로자들이 휴양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휴양과 정양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고,

◁**상 식**▷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해방후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로동과 휴식에 대한 근로인민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선포한 력사적인 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20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로동법령초안에 대하여》에서 로동법령을 제정하여야 할 력사적필연성과 의의, 로동법령의 성격과 특징, 로동법령초안을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널리 침투시킬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그후 로동법령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에 기초하여 이해 6월 24일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하나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정휴양에는 일하면서 혜택을 받는 정양과 건강회복을 기본으로 하여 혜택을 받는 정양, 문화휴식을 위한 휴양, 가족휴양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들은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등 명산들과 약수, 온천들이 있는 풍치아름다운 곳들에 건설된 휴양소들은 물론 기관, 기업소들과 그 가까이에 설치된 정양소들에서 충분하고 즐거운 휴식을 한다. 정휴양생들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모두 26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로동법령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사회단체, 소비조합 및 개인의 모든 기업소와 사무소의 로동자와 사무원들에 대하여 8시간로동제를 제정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8시간 로동을 제정하면서 그 시간적길이를 로동조건과 나이에 따라 줄이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다음으로 불평등한 식민지적임금제도를 철폐하고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의 질과 량에 대하여 꼭같은 보수를 주는 가장 공정한 임금제도를 제정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또한 로동자, 사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할수 있도록 휴식의 권리에 대해서도 제정하였다. 이밖에도 로동보호제와 의무적사회보험제,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 등을 제정하였다.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전체 로동자, 사무원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는 가장 민

지답사, 영화관람, 예술소품공연, 무도회, 유희오락, 체육경기, 등산, 배놀이, 수영, 낚시질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문화적이며 유쾌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정휴양생들은 정휴양기간 매끼 국가가 정한 영양식사를 공급받으며 충분한 휴식을 하고있다.

농장원들에 대한 휴양은 겨울에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농장에서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한 분조의 농장원들은 모내기와 가을걷이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도 휴양과 평양견학을 조직할수 있게 되였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정휴양과 평양견학을 위하여 가거나 끝마치고 돌아가는 근로자들을 려객렬차와 뻐스, 배에 우선

주주의적인 로동법령으로서의 특징을 가지였다.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자본주의적착취를 옹호하는 로동법령과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할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로동법령과도 꼭같지 않는 독창적인 로동법령으로서 당시 우리 혁명의 성격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적인 로동법령이였다.

이 로동법령은 발포되자마자 전체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새 조국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크게 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로동자, 사무원들을 일제식민지착취관계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로동조건과 물질생활을 개선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태워주도록 하고있다.

이외 공화국에서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명승지들에 대한 답사와 야영소에 오갈 때의 려비와 식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있으며 답사숙영소와 야영소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국가사회보험예산에서 지출하고있다.

❖위인일화❖

한달휴양을 8일만에 끝내시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의 갈피마다에는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새겨져있다.

그가운데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달휴양을 8일만에 끝내신 이야기도 있다.

주체62(1973)년 9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특별결정에 의하여 휴양지로 떠나게 되시였다.

휴양기일은 한달이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첫날의 《휴양》을 어느 한 협동농장에 대한 현지지도로 시작하시였다.

그날 밤 어버이수령님께 한 일군이 휴식하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할 일이 많고 몹시 바빠서 휴식을 못하겠다

고 하는데도 이번에 당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휴식하라고 해서 떠나왔지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마음편히 쉬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런 속에 날이 흘러 《휴양》 여드레째 되는 날이 왔다.

이날 하루동안에만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염주군 룡북협동농장 제5작업반을 돌아보시고 어느 한 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으며 평안북도의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도의 사업을 의논해주시였다. 그러시느라 그이께서는 점심마저 건느시고 저녁늦게야 숙소로 돌아오시였다.

일군들이 너무도 안타까와 어버이수령님께 이제라도 휴식하셔야겠다고 간청드리자 그이께서는 이제는 휴양을 그만하고 오늘 평양으로 올라가야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모처럼 응낙하신 한달휴양을 8일만에 그만두겠다고 하시자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께 휴양을 계속하실것을 거듭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휴식이라는게 별다른것이 아니라고,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들의 애로를 풀어주고 그들이 기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휴식으로 된다고, 일이 휴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고 하시며 오히려 일군들을 설복하시였다.

❖위인일화❖

합 격 도 장

주체103(2014)년 10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으시였다.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과학자, 기술자들이 흥겹고 다채로운 휴양생활을 하면서 피로도 풀고 몸도 단련할수 있는 훌륭한 휴양소가 일떠선것이 못내 기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돌아보면서 휴양소운영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종합봉사소 1층홀에 꾸려진 기념품매대에 들리시여서는 휴양소에 왔다가 기념으로 남는것은 사진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기념품매대대신 사진현상설비를 차려놓도록 하시였고 주방에 들리시여서는 설비상태를 하나하나 료해하시면서 그릇소독을 더 잘할수 있도록 대책도 친히 세워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2층홀에 설치한 탁구판을 보시고서는 여기에서 휴양생들이 탁구를 치면 탁구공이 아래로 굴러떨어져 그것을 줏자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면서 탁구판을 옮기고 다른 운동기재를 놓아주도록 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치료실, 리발실, 미용실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있는 홀에 이르시였다.

문득 걸음을 멈추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휴양소가 과학자들에게 합격될수 있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미소속에 하시는 말씀이였으나 저으기 걱정이 실려있었다.

참으로 뜻밖의 말씀이였다.

그이의 은정깊은 걱정은 계속되였다. 덕수시설과 물속초음파안마장치, 휴식의자 등이 갖추어져있는 실내물놀이장을 돌아보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합격될것 같은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일군은 정말 과분하다고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야외물놀이장과 다용도야외운동장, 휴양각 등을 련이어 돌아보시면서 꾸린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후에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음이 놓이시는듯 환히 웃으시면서 이만하면 과학자들에게 합격될수 있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과연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국가지도자가 건설주, 시공주가 되여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일떠세운적이 있으며 품 한자루,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그것을 리용할 과학자들을 《합격도장》의 주인으로 내세운적이 있었던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운영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일군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시고 휴양소를 떠나시였다.

진정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천만로고를 바쳐 고귀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인민은 그 창조물들에 《합격도장》을 찍는 이런 격동적인 화폭, 희한한 이야기가 이르는 곳마다에 수놓아져 있는 공화국이다.

사회보장제는 어떤 제도인가

사회보장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이다.

국가는 국민소득가운데서 사회보장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몫을 계획적으로 형성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에게 현금 및 현물지불에 의한 방조를 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할 때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고 명기되여있다.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의 형태에는 현물 및 현금에

의한 방조(식량, 식료품, 사회보장년금, 보조금),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전면적방조(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 의료상방조(교정기구, 세바퀴차…), 알맞는 일자리의 보장 등이 있다.

공화국에서는 1986년 1월 1일부터 협동농민들에게도 사회보장제를 실시하고있다.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보장혜택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였다.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을 위해 어떤 시책들을 실시하는가

공화국에서 년로자는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이다. 그들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선배로 떠받들리우며 살고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은 도덕과 륜리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일정한 로동년한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년로년금을 주고 각종 사회적혜택으로 보조금을 주며 로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돌볼 사람

이 없는 늙은이들을 양로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부양한다는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는 년로자들에게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잘 차례지도록 하며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봐줄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공화국은 년로자들이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년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년로자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고있으며 조국을 위해 자기들의 피를 아낌없이 바친 전쟁로병들,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다. 년로자들의 생활은 물론 건강까지도 책임지고 보호해주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장수자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는것만 놓고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최근년간에 들어와 경애하는 원수님과 당의 은정속에 나라의 곳곳마다에는 년로자들을 위한 전쟁로병보양소와 양로원들이 일떠섰다.

이 궁궐같은 보금자리들에서 그칠새없이 울려퍼지는 년로자들의 랑만과 희열에 넘친 노래소리와 웃음소리는 그대로 사회주의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인것이다.

공화국에서는 국제로인의 날을 비롯한 뜻깊은 계기들에 년

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활동과 체육활동을 활발히 조직함으로써 년로자들이 인생의 황혼기에도 젊음에 넘쳐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있다.

국가의 이러한 보살핌속에서 년로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있다.

공화국에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애국의 길을 걷고있는 년로자들, 당과 국가의 혜택에 보답하기 위하여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가 훨씬 지났지만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바쳐 나라에 커다란 리익을 주는 로과학자, 로교수, 년로자들이 수없

◁**상 식**▷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하여》는 1985년 10월 4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신 전기간 농민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장 옳은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해방후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땅의 주인이 되려는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시켜주시고 전후 농업협동화운동을 성과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세워놓으신

이 많다.

그들이야말로 그 어떤 대가나 명예를 바라는것이 아니라 오직 조국의 래일을 위해 누가 보건말건 변함없이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고있는 성실한 인간, 참된 애국자들인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사회활동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에게 훈장과 메달을 비롯한 국가표창도 수여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인생의 황혼기에도 젊은 시절의 그 기백과 열정으로 여생을 마음껏 즐기는 공화국의 년로보장자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농촌의 모든 기본건설과 문화주택건설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시였으며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협동농민들은 무료의무교육, 무상치료, 산전산후휴가, 정휴양을 비롯한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에서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농업생산과 농업협동경리의 축적금이 끊임없이 늘어남으로써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을 줄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바로 그 자랑과 긍지,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는 은혜로운 품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이 땅 가는 곳마다에서 흥겹게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 생활
우리 당을 받들어서 한생토록 젊으리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여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198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정령은 협동농장에서 오래동안 일하다가 나이가 많아 일을 계속할수 없는 사람들과 오래동안 앓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협동농장에서 일하다가 다쳐 더는 일할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협동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가 실시됨으로써 협동농민들이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으며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사회적평등을 실시하는데서 새로운 큰 전진을 가져올수 있게 되였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자립적으로 생활할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적 시책은 어떤것인가

조선로동당의 년로자보호정책에 의하여 공화국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양생자들은 양로원, 양생원에서 돌봐주고있다.

양로원, 양생원에 입소하면 영양급식을 하루공급기준에 따라 보장받으며 침구류로부터 일체 생활필수품을 100% 보장받으며 생활한다. 문화오락, 도서열람, 운동설비리용을 무상으로 보장받으며 리발, 목욕 등의 종합봉사와 치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혜택을 받는다.

국가가 제정한 양로원, 양생원의 보양생들의 생활필수품공급기준은 계절에 따르는 내의와 옷, 모자, 신발, 양말, 담배, 비누, 치약 등 수십가지나 된다. 그리고 매일 고기, 물고기, 알, 남새, 산나물을 포함하여 영양가높은 식사를 보장받는다.

비록 로동능력을 상실하여 불구가 되였어도 그들의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공화국의 참다운 인민적시책에 대하여 더 깊이 알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불구가 된 근로자들에게 교정기구, 세바퀴차를 무상 또는 눅은 값으로 보장하고있으며 공로자들가운데서

불구가 된 사람과 영예군인,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에서 보양하고있는 사람, 재해로 불구가 된 사람들에 한하여 교정기구, 세바퀴차를 받기 위하여 가고오는데 드는 려비는 국가예산에서 부담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상실하여 의학적 감정을 받은 대상(허약자)들로 경로동직장을 조직하고 운영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가적수입을 얻어 생활을 보다 향상시킬수 있게 할뿐아니라 로동료법, 영양료법, 약물료법을 옳게 배합하여 건강과 로동능력을 더 빨리 회복할수 있게 하고있다.

경로동직장운영제도는 공화국에만 고유한것으로서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또 하나의 뚜렷한 표현이다.

이처럼 사회보장시책은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당과 국가의 인민사랑을 구현한 참다운 시책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건국의 초행길을 헤쳐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37(1948)년 5월 승호군 만달리(당시)에 자리잡고있던 양로원을 찾으시여 로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국가가 로인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사랑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온 나라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내세우는 도덕기풍을 세워주시고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위한 시책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양로원건설을 발기하시고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우리 당 년로자보호정책이 철저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본보기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였다.

오늘 평양양로원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각지에는 양로원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로인들의 기쁨은 더욱 커졌다.

이렇듯 근로인민을 위한 참다운 시책이 있어 온 사회에는 덕과 정이 흐르고 모두가 한가정이 되여 화목하게 사는것이다.

영예군인들은 어떤 우대를 받으며 생활하는가

공화국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과 인민군대에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을 《영예군인》이라고 부른다.

이 고귀한 칭호와 함께 영예군인들은 온 나라가 떠받드는 귀중한 사람들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전에 영예군인들과 함께 있는것이 제일 기쁘다고, 영예군인들은 피로써 조국을 지킨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영예군인들은 꽃방석에 앉히고 존대해야 할 귀중한 혁명동지,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핵심이고 공로자들이라고,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도 영예군인들의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관심하고 보장해주도록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오늘은 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예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며 영예군인들은 조국보위초소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전투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한 혁명전사들, 당이 아끼는 보배들이라고 높이 내세워주고계신다.

절세위인들의 친어버이사랑과 더불어 영예군인들을 우대하는 시책은 시종일관 실시되고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기로 한다.

국가는 매월 부류에 따르는 영예군인우대금을 지불하는것을 비롯하여 해마다 그들에게 보약값을 주고있으며 그 보호자들에게도 많은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영예군인들에게 교정기구와 세바퀴차를 국가부담으로 공급

하고있으며 려행할 때 차표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준다. 또한 시내려객운수수단을 무료로 리용한다. 편의봉사기관들에서는 영예군인들에게 우선봉사를 하여주고 렬차나 뻐스마다에는 영예군인좌석이 있어 영예군인들은 불편을 모른다.

영예군인이 영예군인학원을 비롯한 대학, 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기간에는 교복과 학용품을 비롯한 숙식조건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영예군인이 기관, 기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 부상으로 공상불구에 대한 의학감정을 받았을 때는 받고있는 영예군인우대금에 관계없이 따로 보조금을 준다.

영예군인공장과 경로동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한끼의 영양급식을 보장받으며 입맛이나 날 정도로 일하고 치료를 보장받는다.

돌볼 사람이 없는 영예군인은 영예군인보양소에서 매일 영양식사를 공급받으며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생활한다.

이렇듯 훌륭한 시책과 함께 영예군인들의 눈이 되여주고 팔과 다리가 되여 일생을 같이하는 이 나라의 수많은 청년들, 그들의 친형제, 친부모가 되여주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영예군인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있는것이다.

❖위인일화❖

전상자들을 위해 취해진 사랑의 조치

생사를 판가리하던 1951년 6월 공화국에서는 영예군인학교들이 일제히 학업을 시작하였다.

평화시기도 아닌 전쟁시기에 어떻게 되여 이런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겠는가.

1950년 12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당시로 말하면 미제가 크리스마스전까지 전조선을 강점하겠다고 미쳐날뛰던 때였다.

그처럼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당한 전상자들을 만나보시기 위하여 어느 한 인민군후방병원을 찾으시였다.

그날 입원실에 들리시여 환자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중환자의 곁에 가앉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상처가 어떤가, 입맛은 있는가, 먹고싶은것은 없는가, 고향은 어데며 부모가 계신가, 학교는 어데까지 다녔으며 어느 전투에 참가했는가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그는 친어버이심정으로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물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입대경위와 락동강전투에도 참가하였다고 대답

올리였다. 그리고는 원쑤를 모조리 쓸어눕히자던것이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니 최고사령관동지를 뵈올 면목이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면목이 없다?! 아니요. 동무는 아주 용감하게 잘 싸웠소. 동무들은 모두가 나라의 참된 아들딸들이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요. 그것은 후대에 자랑스럽게 전해질 위훈이요.》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 감격한 그는 빨리 병을 치료하고 꼭 다시 전선으로 나가겠다고 수령님께 거듭 맹세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모포깃을 여미여주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지금 동무의 전투는 병과 싸우는것이요. 또 이것이 동무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이요.

이제 건강만 회복되면 전선에 나가 싸울수도 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수도 있소.

우리는 부상당한 동무들의 장래문제를 생각할 때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듣고있던 전상자들은 자기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어버이 그 사랑에 모두가 목메여 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울지들 말라고, 눈물을 흘리는것을 보고 떠나면 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는가고 하시고는 병원일군들에게

동무들은 환자들의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고, 이 동무들을 더 잘 치료해주어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이윽고 최고사령부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전원회의를 여시고 영예군인들을 우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내각결정에는 이렇게 밝혀져있다.

《…싸우다 부상을 당한 인민군장병들에게 따뜻한 숙식을 제공하며 정성껏 치료하여 그들로 하여금 속히 다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기회를 지어줄것이며 부상병들을 위하여 영예군인학교를 적당한 지역에 설치하고 각종 실무적교육을 실시하며 그들의 안정한 생활을 보장할것. …》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회의를 비롯한 주요회의들에서 영예군인들을 따뜻이 보살펴줄데 대한 조치를 거듭 취해주시였으며 1951년 6월부터는 영예군인학교들이 일제히 학업을 시작하도록 해주시였다.

영예군인들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조치는 년대를 이어 끊임없이 취해졌다.

현재 공화국의 보험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류형들이 있는가

우선 재산보험을 들수 있다. 여기에는 화재보험, 배보험, 자동차보험, 수송화물보험, 농작물보험, 집짐승보험, 콤퓨터설비보험, 손전화기보험 등이 속한다.

또한 사망보험, 불상사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부양자보험 등과 같은 생명보험도 있다.

오늘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나날이 향상되는데 맞게 보험사업을 개선강화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나선다.

이로부터 조선민족보험총회사에서는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요구에 맞게 보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혁신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결과 사회생활안정과 인민들의 물질생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품질보증보험, 봉사시설화재보험, 가정용전자제품보험을 비롯한 새로운 보험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최근에는 인민들의 생명과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반영하여 대외사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공화국공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려행자보험이 광범히 진행되고있다.

해외려행자보험은 국제회의와 참관, 실습, 체육경기 등 대외사업 및 교류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단기로 파견되는 공화국공민들이 해당 나라에서 체류 또는 려행과정에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의료상방조를 비롯하여 그들의 생명안전보장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실례로 해외려행중에 있는 공화국공민이 차사고로 부상당하는 경우 해당 나라의 규례에 따라 부상자는 병원에로의 후송으로부터 시작하여 검진, 진단, 구급치료, 입원, 송환 등의 의료상방조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해당 나라의 의료기관은 막대한 치료비의 지불을 본인당사자에게 요구한다.

이런 재정적지불의무를 국가가 부담하고 피해를 입은 공민의 생명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공화국의 인민적보험시책이 바로 해외려행자보험이다.

오늘도 국가는 인민적시책인 사회주의보험의 혜택속에 인민들이 더욱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있다.

4. 살림집에 대한 국가적보장시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집세라는 말조차 모르고 행복하게 생활하고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뭐니뭐니해도 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흔히 집을 가리켜 보금자리라고 하는것이다.

그 보금자리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삶을 설계하고 행복을 꾸려나간다.

하기에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문제는 먹고 입는 문제와 더불어 사활적요구로 제기되여왔다. 또 지금에 와서는 살림집문제가 해당 나라와 사회의 발전정도, 사회제도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평생소원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아보는것이라고 한 사실에서도 집문제가 력사적으로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하고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되고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하여 집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집없는 사람들의 고통섞인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울려나오고있으며 평범한 근로인민에게 있어서 제 집마련은 일생을 두고 이룰수 없는 소원, 평생의 꿈으로 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돈없고 집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나라와 지역사이의 분쟁, 민족과 종족사이의 충돌, 종교적갈등으로 인해 파괴와 략탈, 살륙이 벌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난민이 되여 정처없이 떠돌고있다.

《물질적번영》에 대해 그토록 떠드는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와 계속되는 생계비인상으로 제 집이 없이 한지에서 생활하고있는데 지난해 11월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집없는 사람들의 도시》로 알려진 어느 한 나라의 도시에서는 매일 5만 1 000명이상이 한지에서 새날을 맞고있고 발전되였다고 하는 어느 한 나라의 크지 않은 도시에서만도 매일 밤 수천명의 집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와 골목, 다리와 지하철도에서 밤시간을 뜬눈으로 지새우고있다.

그러나 이와는 너무나도 대조되게 국가의 보살핌속에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 도시와 농촌에 많은 살림집을 건설하였으며 나라사정이 아무리 긴장하더라도 살림집건설만은 중단함이 없이 진행해오고있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본다면 공화국에서는 6개년계획기간(1971년—1976년) 도시다층주택 41만 4 000세대와 농촌문화주택 47만 2 000세대가 건설되였으며 1990년대초에 5만세대의 살림집이 완공된데 이어 3만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였다.

하여 평양시에서만도 천리마거리, 비파거리, 락원거리,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 많은 거리들이 일떠섰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에만도 45만 8 000여세대의 살림집들을 지어 인민들에게 배정하여주었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는가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그렇게 마련된 살림집들을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리용하도록 하였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은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것이다.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있는 조선에서는 시간이 다르

게 화려한 거리들이 계속 일떠서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을 찾아볼수 없다. 조선정부는 인민을 위한 사업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살림집을 국가로부터 어떻게 배정받는가

공화국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웬만큼 재산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초고층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쓰고 살고있다.

평양의 현대적인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일떠선 려명거리에는 물론 지방도시와 농촌, 어촌과 산간벽촌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 가도 돈을 내고 국가로부터 새 살림집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자기들이 살고있는 집값을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공화국을 찾았던 외국인들이 우리 인민들을 가리켜 《백만장자》라고 부르며 부러워하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것이다.

만수대거리를 놓고보아도 고급아빠트들이 일떠설 당시 외국의 언론들은 《경치좋은 이곳에는 아마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살게 될것이다.》라고 제나름의 억측들을

내돌리였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만수대거리의 고급살림집들에는 로동자, 과학자, 교원들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입사하였고 철거세대들이 한세대도 빠짐없이 새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받았다.

그래서 언제인가 창전거리의 한 살림집을 찾았던 외국인이 집값을 모르는 집주인에게 《행복한 바보》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집값을 알려주고 간 일화도 생겨났다.

실로 복받은 인민들이다.

집값과 집세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기에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서방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면서 이 나라에서는 실업자나 집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전혀 찾아볼수 없으며 누구나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조선의 수도 평양에 훌륭히 일떠선 창전거리의 어느 한 가정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돈 한푼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받은 살림집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로동자가족의 모습이 정말 부러웠다. 자본주의사회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현실이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로동자들이 일생을 벌어도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온갖 국가적혜택속에 살고있으며 인민을 위한 사회적

시책들은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현대적인 거리들에 줄지어 늘어선 초고층살림집들에서 교원, 과학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있는 현실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국가가 희한한 새 살림집들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는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조선에서 인민사랑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안아온 인민들의 행복상을 통하여 무엇을 알수 있는가.

사회주의조선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보금자리,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라는것이다.

❖위인일화❖

정권기관보다 높이 솟은 살림집

주체59(1970)년 3월 어느날 이른새벽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사리원시내를 돌아보실 때였다.

시내의 중심거리에서 걸음을 멈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맞은편 공지를 가리키시며 저기에 10층짜리 고층살림집을 앉히면 좋겠다고 하시였다.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고층살림집을 짓겠다

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설계에서 빼놓았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을 바라보시며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그 자리에 높은 주택건물을 앉히면 맞은편에 있는 정권기관청사가 눌리울것 같아 부지를 그대로 놔두었다고 말씀올리였다. 일군이 정권기관청사가 돋보이게 거리를 전개하는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이 주인인 우리 나라에서는 정권기관청사가 근로자들의 살림집보다 낮은것이 흠이 아니라고, 정권기관청사보다 살림집이 높으면 더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얼마후 그 공지에는 맞은편의 정권기관청사보다 훨씬 높은 고층살림집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되였다.

❖위인일화❖

짧은 휴식참에도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였다. 이른새벽부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함경남도 금야군의 어느 한 등판에 이르시였다.

먼길을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잠시나마 휴식하시였으면 하

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있던 한 일군이 그이께서 승용차에서 내리시자 휴식할 자리를 잡느라고 사방을 두루 살피였다. 그러는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앉을 사이가 없다고, 바람이나 좀 쏘이다 떠나자고 하시더니 금방 지나온 금야군소재지를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산기슭을 따라 아담하고 규모있게 늘어선 문화주택들을 바라보시는 그이께 다른 일군이 군소재지치고는 비교적 잘 꾸린것 같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용한 어조로 그러나 아직 낡은 집들이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저 굴뚝을 보라고, 드문드문 살림집 한채에 굴뚝이 두개씩 있지 않는가고 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잘된것만 보지 말고 잘못된것도 볼줄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 해야 하겠는가를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주택지구를 다시금 바라보았다. 눈여겨 살펴보니 새로 건설된 문화주택들사이에 낡은 집들이 드문드문 끼여있는것이 보였다.

옥에 티라고 얼핏 보기에는 주택지구가 아담하고 깨끗하게 꾸려진것 같았지만 몇채의 낡은 집이 부조화를 이루며 어설프게 안겨왔다.

일군들이 그 집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문화적이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충

분히 마련하여주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는 언제면 우리 인민모두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다 지어주겠는가 하고 늘 생각하군 한다. 어떤 때에는 기쁜 일이 있어 웃음이 나가다가도 아직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풀어주지 못하였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어린 그이의 교시에 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세계적으로 주택문제를 완전히 푼 나라는 아직 없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들이 못하였다고 하여 우리도 못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벽돌 한장, 기와 한장 성한것 없이 다 파괴되였지만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전후 짧은 기간에 도시와 마을을 복구하고 그후 계속 살림집건설에 큰 힘을 돌려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만족할 근거는 조금도 없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주택지구를 바라보시며 모든 인민들이 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쓰고살게 하자면 아직 건설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을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살게 하는 것은 당이 결심하고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라고, 자신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것을 많이

생각하고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현지지도길의 그 짧은 휴식참에도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은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 인민의 행복이였다.

최근년간 국가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하여 어떤 거리들과 살림집들을 세워주었는가

국가가 전적으로 인민들의 살림집을 책임지고 건설하여 보장해주는것은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오고있는 인민적시책들중의 하나이다.

정세가 아무리 긴장하고 나라의 살림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인민들에게 돌려지는 인민적시책은 추호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당과 국가활동의 일관한 립장이고 원칙이다.

당과 국가에서는 인민들에게 살림집들을 더 많이 마련해주기 위해서 살림집건설을 해마다 대대적으로 진행하고있을뿐아니라 인민들의 높아지는 물질문화적수요에 맞게 편리성과 현대성에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창조물들로 일떠세우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서만도 평양시에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

명거리들이 현대적으로 건설되였다.

그 하나하나의 거리들마다에는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으며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문명의 황홀경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과 국가의 배려와 혜택이 눈물겹게 어려있다.

려명거리만 놓고보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과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변혁을 이룩해가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안고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

아담한 다층건축군, 웅장화려한 초고층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조형화, 예술화, 록색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여 주체건축예술의 미래와 사회주의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려명거리는 이 땅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과 인민들을 위한 만복의 별천지인것이다.

려명거리가 일떠선 시기로 말하면 이 나라 인민들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버리려는 적대세력들의 비렬하고 치졸한 제재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때였다.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

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준 계기로,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였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선 려명거리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오늘도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어찌 려명거리뿐이겠는가.

전국의 방방곡곡마다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지난해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공사가 완공되여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영광의 땅 삼지연지구가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되게 되였다.

삼지연시의 거리들 하나하나가 다 민족성과 현대성,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이 훌륭히 결합되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모든 건축물들의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회주의문명의 축도이다.

천지개벽은 사회주의농촌에서도 일어나고있다.

몇해전에는 평양시의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되여 만사람의 경탄을 불러일으키였다면 지난해에는 북방의 동해기슭 중평지구에 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 전형으로 되는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이 일떠서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희한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은덕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새집들이의 주인공들은 뜨거운 격정에 넘쳐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솟아오른 덩실하고 멋있는 살림집을 받아안은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 누구나 선뜻 새 집에 들어서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같은 이 사랑에 보답할 한마음을 안고 조국을 받드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평양시와 지방의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에 따라 각지에서 살림집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계획에 따라 올해 5월에 들어와 백수십동의 살림집골조공사가 결속된 소식이 전해지고 함경남도 허천군 신흥로동자구의 광산마을에는 수십동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서 깊은 산골마을에 행복한 도시생활이 《이사》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평양국제비행장주변에 1 000여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져 10월에는 새집들이를 진행하였으며 평안북도 룡천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도 많은 살림집들을 건설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이 그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인

민을 제일로 위하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으로 하여 이 땅 우에는 사랑의 보금자리들이 더 훌륭히, 더 많이 일떠서게 될것이며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의 긍지와 행복은 더욱더 커만 갈것이다.

❖위인일화❖

집주인의 심정으로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이였다.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초고층아빠트의 맨 웃층인 45층에까지 오르시여 살림집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실 때였다.

몸소 집주인이 된 심정으로 살림방의 방바닥도 일일이 짚어보시고 부엌에 들어서시여서는 행복한 주부의 모습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베란다에 나서시였다.

대동강을 따라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이 한눈에 확 안겨왔다. 동행한 일군들도 눈앞에 펼쳐진 장쾌한 모습에 한껏 심취되여 한동안 그곳을 떠날줄 몰랐다.

그러한 일군들을 정깊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바람소리가 들리누만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도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강구었다.

정말 창문가에서 바람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창가에서 울리는 바람소리를 가늠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람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일군들을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호동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도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게 창문틀에 바람막이를 잘할데 대하여 거듭거듭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살림집에 사소한 부족점도 있을세라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위인일화❖

몸소 오르신 계단

평양의 룡흥네거리에 특색있게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이 살림집을 보며 누구나 터져나오는 경탄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토록 감탄을 자아내는 이 훌륭한 건축물에 슴배여있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다는 알지 못할것이다.

주체102(2013)년 9월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두번째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세간난 자식의 새 집을 보아주는 심정으로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미흡한 점이 하나라도 있을세라 훌륭히 완공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7층에 꾸려진 실내휴식장에 올라가보자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당황하였다. 당시 승강기가 시험중에 있었던것이다.

한 일군이 승강기가 시험중에 있기때문에 후에 올라가보시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운동삼아 걸어서 올라가겠다고 하시며 앞장에서 오르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며 동행한 일군들은 눈굽이 뜨거워옴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위함이라면 건설장의 높은 층계도 기꺼이 오르시는 우리 원수님 같으신분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은 땀으로 푹 젖어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놀이장을 만들 구획에 쌓아놓은 놀이기구들을 보시면서 교원, 연구사들의 자녀들이 좋아하겠다고 기뻐하시였고 바닥에는 자연돌과 타일을 깔고 잔디도 심으며 화대에는 꽃을 심어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다심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교육자, 연구사들이 온갖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살림집들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삶을 누리는것이다.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살림집을 어떻게 보장받는가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있을수 있는 일이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나가면서 그 자연을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이지만 자연의 광란으로 하여 당하는 불행과 재난이 끊기지 않고있는것이 바로 인류가 몸담고있는 지구상의 가슴아픈 현실이다.

둘러보면 세상에는 예상치 않았던 자연재해로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문제는 피해복구를 대하는 매개 나라의 립장과 재난의 후과를 수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어떠한가 하는것이다.

불행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활상방조를 주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이고 응당한 인도주의적의무인 동시에 해당나라의 인권보장실태를 가늠해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도 된다.

하지만 물질만능, 권력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재난이 치부욕에 환장한 수전노들에게는 돈주머니를 불릴수 있는 기회로, 권력쟁탈에 혈안이 된 위정자들에게는 정치적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략적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인민들이 겪는 불행과 아픔이 지속되고 민심이 롱락당하는것과 같은 천재 아닌 인재,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참사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있다.

피해복구사업은 단순히 물질적부의 축적정도나 경제력,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당 나라의 당과 국가, 사회제도의 성격과 관련되는 문제라고도 말할수 있는것이다.

국가가 실시하는 훌륭한 인민적인 시책으로 자연재해가 생겼다 해도 수난자는 한명도 없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조선이다.

최근 몇년간을 돌이켜보아도 잘 알수 있다.

2015년 8월 대홍수로 그 형체조차 알아볼수 없었던 라선시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피해의 흔적을 깨끗이 가셔버렸다.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지역에 1 300여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청계동, 유현동, 관곡동지구 등 여러곳에 500여세대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새로 건설되여 인민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되였다.

새집들이날에 당에서 배려하여준 TV와 의복류, 경질유리그

릇, 식료품은 물론 성냥과 위생종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활필수품을 받아안고 인민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고쏟았다.

훌륭한 새 집들을 받아안게 된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생활필수품까지 받아안은 감사의 마음은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되여 온 라선땅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그뿐이 아니다. 2016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과정을 통해서도 국가가 인민들에게 안겨준 배려가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폭우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공화국의 함북도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의 백수십개 지구에 3 000여동에 달하는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이 50여일만에 완공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한순간도 방치되여서는 안된다는 조선로동당의 중대결단에 의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로 전환할데 대한 인민사랑의 호소문이 발표되고 전당, 전군, 전민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사생결단의 치렬한 건설대격전을 과감히 전개하였던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이 사실을 목격한 로씨야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 단장 워또르 보가또브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최근 조선의 북부지역에서는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재해지역이 넓고 피해규모가 엄청나기때문에 복구사업에 상당한 국가예산이 지출되여야 하므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쉽게 결심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매우 짧은것이였다.

조선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해 국가의 중요대상건설도 중지하고 피해복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이 없이는 내릴수 없는 대용단이다.

조선방문기간 나는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이 복구전선에 총동원, 총집중되고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피해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가슴뜨거운 현실을 목격하며 정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뜨거운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혼연일체의 장엄한 화폭을 펼쳐놓은것이다.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를 모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세상만복을 다 받아안은 행운

아들이다.》

지금 이상기후현상으로 해마다 일어나는 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지구상 어디서나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재난을 당하고있으며 한지에 나앉아 구원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하지만 인민의 생명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책임적으로 보살펴주는 당과 국가의 고마운 품이 있어 인민들은 그 어떤 자연의 광풍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만세를 더 높이 부르는것이다.

이번 장마철기간에도 공화국의 여러 지역이 혹심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허나 피해지역 인민들의 얼굴에서는 설음의 눈물을 찾아볼수 없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령도자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이들의 마음속에서 설음을 말끔히 가셔주었기때문이다.

아직은 도로와 마을들이 물에 잠겨있던 그때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수백리 험한 길을 달려 제일먼저 피해지역을 찾아가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곳 주민들의 안부부터 물어주시며 따뜻이 위로해주시고 현지에서 식량과 공사용자재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그이의 하늘같은 사랑은 삽시에 피해지역 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돌아가시여서도 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걱정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수많은 생활용품과 의약품을 거듭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더우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 당창건 75돐을 맞이하게 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부문별과업과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피해지역을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발전한 시대적수준에 맞게 새롭게 일신시키며 앞으로 자연재해나 큰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한 위치에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언제나 함께 하고 그것을 가셔주고 지켜주는 령도자가 계시고 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피해지역 인민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앞날에 대한 신심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진정 그 어떤 횡포한 자연의 광란도 사회주의조선에 사는 인민들의 보금자리와 그속에서 꽃피는 그들의 웃음을 빼앗을수는 없는것이다.

공화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반향

《10여년만에 조국을 방문한 저는 놀랍기만 하다. 정말 조국의 모습이 너무도 변하였다. 더우기 1년만에 이런 현대적이고 훌륭한 창전거리를 일떠세웠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 조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사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하며 얼마나 인민적인 사회인가를 우리들처럼 체험하지 못할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 공화국과 같은 사회제도는 없으며 이러한 사회주의, 사회제도는 목숨바쳐 지켜야 한다.》

(재중동포)

《1년만에 다시 왔는데 평양시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아름다워졌다. 새로 건설된 창전거리 살림집들과 봉사망들이 매우 현대적이고 형식이 독특하다. …이 희한한 살림집들에 평범한 로동자들이 입사한 소식이 사진과 함께 실렸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정말 놀라운 일이였다. 온 세계가 놀랄것이다. 이런 훌륭한 거리가 불과 1년사이에 건설되였다는것도 놀랍지만 세계적수준의 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인민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는것이 더욱 놀랍다.》

(재프랑스동포)

《정말 대단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기술을 얼마나 중시하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가 하는데 대하여 잘 알았다. 3칸, 4칸짜리의 엄청난 값이 드는 집을 훌륭히 지어 과학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려해주었다는데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모두가 믿지 않고있다. 조국의 미래에 대한 신심이 생긴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참관한 재미동포)

《내가 수십차례 조국을 방문하였지만 조국인민들의 살림집에 들어가보기는 처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의 과학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내세워주시는지 잘 알았다. 이런 집은 중국에서 웬만큼 돈이 있다는 사람들도 쓰고살기 힘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훌륭한 아빠트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과학자들과 교원들에게 돈 한푼 받지 않고 배려해주시였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더 잘 알게 되였고 또 우리 조국의 정책이 얼마나 좋은가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방문한 재중동포)

《조카집에 가보고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였다. 42살밖에 안되는 우리 조카가 나라의 과학교육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로학자선생님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현대적인 고급주택을 선물로 받아안았다.

너무 말이 나가지 않아 말을 못하였다. 200㎡나 되는 큰 집에서 조카의 3식구가 살게 되는데 가구는 물론 모든것이 다 그쯘히 갖추어진 집이여서 식구모두가 맨몸으로 들어가도 살수 있게 훌륭히 꾸려졌다.

일본 같으면 이런 집을 하나 사자면 온 식구가 한생을 벌어도 사지 못한다.

아마 몇억￥은 될것이다. 이런 희한한 고급주택을 평범한 우리 조카가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았다는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방문한 재일동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신 훌륭한 살림집을 보니 정말 감동이 큽니다. 살림집면적이 큰것도 놀랍지만 많은 가구와 비품들을 일식으로, 현대적인것으로 갖추어주시고 가정주부들이 애용할 그릇일식까지 보내주신 **김정은**동지의 다심하신 사랑이 깃들어있어 정말 뭐라고 형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로씨야에서는 나라에서 일반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가구까지 갖추어주는 례가 없습니다.

이 살림집에서 살게 될 교육자들의 행복을 위해 세차례나

살림집을 찾아주신 **김정은**동지의 사랑을 받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들이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분투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살림살이조건이 다 갖추어진 집에서 사는 선생님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로씨야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종합대학 부교수)

5. 문화정서생활보장시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에서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정신문화적 부의 창조자일뿐아니라 그 향유자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건전하고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당과 국가는 온갖 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해준다.

이것은 공화국의 중요한 인민적시책이다.

조건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공화국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지 않은 품을 들이고있다.

근로자들이 리용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지만 공화국에서는 이 사업을 철저히 국가예산에 의하여 지출되는 자금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문화정서생활기지를 꾸

리는 사업에 자기의 개인적소비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있으며 오직 리용할 권리만을 가지고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꾸려진 학교와 유치원, 병원과 진료소, 료양소를 비롯하여 극장과 영화관, 체육관, 공원, 유원지, 경기장, 사회급양망과 편의봉사시설 등 온갖 문화시설들은 다 국가부담에 의하여 일떠선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인민들의 높아지는 문화정서적요구를 반영하여 국가는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을 새롭게 건설해나가고있으며 이미 있던 시설들도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개건해나가고있다.

최근 몇해사이에만도 릉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보건산소공장, 미래과학자거리와 류경안과종합병원, 려명거리,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 세인을 경탄케 하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올랐다.

사회주의문명이란 과연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더불어 로라스케트타는 바람, 스키바람, 승마운동바람과 같은 시대어들도 태여났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전당과 자연박물관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현대과학기술과 풍부한 지식을 배우는 학습열풍이 일어번지고 물놀이장들과 해수욕장들, 체육공

원들에서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그칠새없다. 자기 손으로 만든 비행기를 타고 아름다운 조국강산의 모습을 굽어보는 환희 또한 끝이 없다.

이를 반영하여 언제인가 다른 나라의 한 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사회주의조선의 어디에서나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그것을 향유하는 근로자들을 볼수 있다. 조선인민들은 당과 국가가 마련해준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조선식, 자기식의 문화정서생활을 창조하며 자기의 자주적지향과 사상감정, 정서에 맞게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문명한 문화정서적생활을 누려나가고있다.

그들이 정말 부럽다.》

공화국의 문화정서기지들마다에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손길이 어떻게 깃들어있는가

공화국의 인민들이 오늘과 같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여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 땅 그 어디 가나 있는 수많은 문화정서기지들마다에 깃든

뜨거운 인민사랑의 사연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해방직후 수난많던 그 세월 온갖 민족적멸시와 억압을 받아온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모란봉에 오르시여 극장터전을 친히 잡아주시고 그 이름도 《모란봉극장》이라고 지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벽돌 한장이 귀했고 해야 할 일도 많았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안겨주시기 위해 동물원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동물원을 꾸리는것은 품이 많이 드는데 경제형편이 풀린 다음에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말씀올리는 외국의 한 수반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인민들이 즐겁게 휴식할수 있는 동물원을 지금부터 차려놓아야 우리가 앞으로 락을 본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그 뜻깊은 교시가 지금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인민사랑은 이 땅 가는 곳마다에 수많은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솟구쳐오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하여 심혈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일찌기 메마른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알찬 열매를 바랄수 없듯이 정서와 랑만이 없는 생활에는 윤기가 없으며 그런 생활에서는 삶의 기쁨을 느낄수 없고 투쟁의 열정도 나올수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투쟁과 정서생활을 서로 뗄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안겨주시려 언제나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고난의 그 시기에도 송암동굴, 울림폭포를 비롯한 수많은 명승지들이 인민의 문화정서기지로 훌륭히 꾸려졌고 칠보산과 묘향산, 구월산을 비롯하여 명산들이 인민의 명산으로 더욱더 빛을 뿌리게 되였다.

어찌 그뿐인가.

생전에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시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품을 들여 현대적인 문화정서기지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신 절세위인의 위대한 손길에 떠받들려 얼마나 많은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솟아오른지 모른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문화휴식장소들 그 어디에서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기쁨과 랑만의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퍼졌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몇해전 중앙동물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동물원을 멋있게 꾸려 인민들에게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또 하나 마련해줄데 대한 은정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동물사들에 관람을 위한 앞선 방법을 받아들이는 문제, 조류사들의 특성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설계를 고칠데 대한 문제,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어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앙동물원개건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남들이 한계단씩 톺아올라온것을 단번에 도약하여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단번도약!

여기에는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사회주의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열정과 드팀없는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중앙동물원만이 아닌 인민을 위한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불과 몇해만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만사람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에는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릉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만민의 경탄과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던가.

예로부터 말도 넘기가 힘들어 쉬고 간 령이라 하여 그 이름도 마식령, 그처럼 험한 령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훌륭한 스키장을 마련해주시려 한해에만도 여러차례나 찾으시였다.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된 그날에는 삭도를 타고 정점까지 오르시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조국인민들이 흘린 감사의 눈물은 너무나 뜨거웠다.

자신께서 구상하신것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또 하나의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리도록 해주신 릉라물놀이장에도, 무려 113건이나 지도해주신 문수물놀이장형성안 등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어리여있다.

언제인가 무더운 삼복철에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찾으시여 승마구락부를 세계적수준에서 잘 꾸리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격정을 누르지 못하던 한 일군이 자기들이 맡은 일을 잘 하겠으니 무더운 삼복철에는 현지지도를 제발 삼가해주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무가 나에게 삼복철에는 현지지도를 하러 다니는것을 삼가해달라고 하는데 날씨가 아무리 무덥다고 하여도 내가 인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흔연히 말씀하시였다.

정녕 인민들이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다.

지난해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현장을 찾으시여 지금 우리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적지 않은 대상건설을 진행하고있는데 현재 조건이 특별히 좋고 여유가 있고 풍족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확고한 결심과 강렬한 의지에 의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일떠세우는 하나하나의 창조물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이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다.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워주시려 세계를 굽어보시는 안목과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창조실력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

위대한 어버이의 다심하신 사랑속에 사람들의 리상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인민은 진정한 사회주의문명의 향유자로, 만복의 주인공들로 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도 많다. 하지만 인민이 그 문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다운 향유자로 되고있는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오직 공화국에만 있다.

정녕 온 나라 천만자식을 품어안으시고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에 받들려 내 나라 강산에는 인민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현대적이고 훌륭한 문화정서기지들을 평범한 근로자들이 어떻게 리용하는가

《저렇듯 시름없이 웃고 떠들며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근로자들이 옳은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의 현실은 나에게 꿈의 세계로밖에 안겨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것은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행복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기때문이다.》

언제인가 문수물놀이장을 찾았던 카나다의 한 인사가 한 말이다.

그는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근로자들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라면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등으로 이루어져 10만㎡가 넘는 건평을 가진 이런 물놀이장을 여느 평범한 사람들은 발을 들여놓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것이다.

문화정서기지들을 누구나 평등하게 리용하는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놀라워하는것은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조국땅 가는 곳마다에 일떠선 인민의 문화정서기지들에서 울려나오는 부러움과 감탄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바로 그렇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리용한다.

사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마련되였다고 하여도 인민대중이 누구나 그것을 리용하지 못하면 그들의 문화정서적요구가 원만히 실현되여나갈수 없으며 그러한 시책은 참다운 인민적시책이라고 말할수 없다.

문화정서생활기지를 꾸리는 목적도 바로 근로대중이 그것을 마음대로 리용하게 하자는데 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대중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많이 꾸려주는것과 함께 그 리용도 모두가 평등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고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공화국에서와 같이 인민들이 물질문화생활에서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있는 나라는 없다.

공화국에서 문화정서생활기지리용은 사회적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다 평등하게 하고있다. 만일 《특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이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영예군인들과 로병들이다. 바로 여기에 모든것이 오직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문화정서생활기지의 봉사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문화정서생활기지리용의 가격제정문제는 그것을 더 많은 근로자들이 리용하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인 동시에 인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가, 못 주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 아는것처럼 다른 나라들에서 한다하는 식당이나 유흥장 등의 봉사료금은 돈많은 사람들이나 리용할수 있는 매우 비싼 가격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봉사료에는 봉사원가외에 봉사리윤과 간접소비세가 포함되여있다. 하기에 극도로 빈곤하게 사는 대다수 근로대중은 그런 곳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봉사의 많은 부분이 대중봉사로 실현되는 조건에서 대중봉사료를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매우 낮게 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이에 따라 봉사료금수입금의 단위당 폭도 작게 설정된다.

그렇기때문에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요구에

따라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는것이다.

오늘 릉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넘쳐나는 근로자들의 웃음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보장받고있는 사회주의제도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근로자들은 사회급양망, 편의봉사시설들을 통하여 어떤 혜택을 받는가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평양을 비롯하여 각 도와 시, 군들에서 사회급양망과 편의봉사시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식생활문화를 높이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적극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시책이 일관하게 실행되여왔다.

사회급양은 여러가지 음식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사회주의상업의 한 부분으로서 급양제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복무한다.

편의봉사는 주민들에게 문화후생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그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적인 봉사로서 편의봉사사업은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도 더 잘 보호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급양망과 편의봉사시설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큰 생활상혜택을 안겨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사회급양망들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것과 함께 랭면을 비롯한 민족음식을 위주로 하면서 필요한 원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고 료리기술을 결정적으로 높여 맛좋은 음식물과 료리를 인민들에게 일상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생활에 긴요한 편의봉사망과 업종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농촌마을에서도 편의봉사시설을 알뜰하게 꾸리고 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인민들이 문화위생적인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고있다.

세상에 그 명성이 자자한 옥류관을 비롯하여 청류관, 청춘관, 평양면옥, 향만루대중식당,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신흥관, 경암각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회급양망들이 평양시를 비롯한 곳곳에 일떠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다. 여기서 인민들 누구나 갖가지 민족음식들은 물론 철갑상어료리, 자라료리까지 봉사받으며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창광원, 문수원, 류경원을 비롯하여 각 도, 시, 군들에 은덕원, 은정원들이 훌륭하게 일떠서 인민들에 대한 편의봉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에 꾸려진 문화후생시설들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은 어떤것들인가

문화정서생활보장시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의 하나가 바로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문화후생시설리용과 관련한 시책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식당과 합숙, 목욕탕, 정휴양소를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잘 꾸리고 봉사사업을 개선하여 합숙생들과 종업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면서 인민적시책을 실지로 느낄수 있게 하는것은 당과 국가가 일찍부터 관심을 두고 품을 들여 실현하여온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생산과 경영활동을 벌려나가는 속에서 자체의 경영자금을 최대로 리용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청춘원,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강성원,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원을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문화후생시설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종업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김정숙평양방직

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합숙이 로동자들의 호텔, 로동자들의 궁전으로 번듯하게 일떠서 합숙생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으며 이는 온 나라에 일반화되여가고있다.

지상락원으로 천지개벽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는 리발, 미용, 사진, 목욕, 물놀이 등 모든 봉사시설들이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장천원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이 아무런 근심없이 문화정서생활을 누려가게 되였으며 그것을 본보기로 전국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문화후생시설들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농업근로자들도 사회주의문명의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고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꾸려주고도 그 리용에서 손해를 보면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러한 나라는 세상에 공화국밖에 없다.

❖위인일화❖

유명해진 강성원의 리발실

로동계급의 문화후생기지로 번듯하게 일떠서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언제나 반겨맞는 강성원.

여기에 가면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리발실이 있다.

바로 이 리발실이 온 나라에 소문난 곳이다.

리발실에는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을뿐아니라 로동자들을

위하는 리발사들의 열의와 봉사성도 특별히 높다.

하지만 강성원의 리발실이 유명해진 리유는 다른데 있다.

주체101(2012)년 5월 1일이였다.

이날은 이 땅의 모든 인민들이 만시름을 놓고 즐기는 명절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였다.

바로 이 공장에 강성원이 있었다. 이 강성원으로 말하면 몇개월전인 1월에는 골조만 서있던 한적한 곳이였다.

그때 공장을 찾으시여 강추위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로동자들의 일터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중에 있는 강성원의 실태도 료해하시였다.

아직 내부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는것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부완성에 기본 품이 많이 들것이라고, 아무래도 건설을 공장자체로 하기에는 힘이 부칠것이라고 하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러시고는 강성원설계도면을 다시 올려다 검토하고 자신께서 다 완성하여주겠다고, 인민군대의 힘있는 부대를 동원하여 제일 멋있는 건물로 완성해주겠다고, 자신께서 힘껏 도와주겠으니 공장현대화와 건물현대화는 걱정하지 말고 잘 타산하고 종합하여 제기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불과 70여일동안에 현대적인 문화봉사기지가 일떠서게 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얹으신채 강성원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다가 번듯하게 했다고, 어서 들어가보자고 하시며 건설에 참가한 부대지휘관들과 공장일군들을 앞에 내세우시였다.

그이께서 수영장에 당도했을 때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격정에 넘쳐있는 로동자들에게 서있지만 말고 수영을 계속하라고 손짓하여 이르시던 원수님께서는 물놀이장 한켠에 설치되여있는 초음파물안마기수감부앞으로 다가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수감부에 손을 가져가시자 파란 불빛이 반짝이더니 분수같은 물줄기가 살같이 뿜어올랐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손을 물에 잠그시고 물온도가 알맞춤한가 가늠해보시며 로동자들이 조용한 곳에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원수님께서는 주로를 따라 멋지게 수영을 하고있는 로동자들의 수영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수영장주로표식줄을 붙잡고있는 한 로동자를 가리키시며 일군들에게 저것 보시오, 벌써 맥이 빠졌소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바람에 장내에 유쾌한 웃음소리가 터지고 즐거운 분위기가 차넘쳤다.

이날 식당내부까지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층에 꾸려진 봉사시설들을 돌아보시며 리발실에 들리시였다.

리발실까지 찾아주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녀성리발사들이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들에게 머리를 잘 깎는가, 기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평양에 올라가서 전습을 받고 왔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해하시면서 격정에 넘쳐있는 리발사들에게 그러면 나도 공장들에 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리발을 해도 일없겠는가고 허물없이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녀성리발사들은 당황하여 그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누가 머리를 깎아주겠는가고 다시금 물으시는 그이의 소탈한 풍모에 끌린 리발사들은 그제서야 꿈에서 깨여난듯 이번에는 제가 리발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며 저마끔 앞에 나섰다.

원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 동무들에게 머리깎는것을 맡겨볼가라고 말씀하시자 봉사자들은 저도 모르게 환성을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이께서 승벽내기로 나서는 녀성리발사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후날 한번 꼭 시간을 내서 머리깎으러 오겠다고 하시자 순간에 리발실에는 한가정, 한식솔의 정이 한껏 넘쳐났다.

다음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성원을 또다시 찾으시여 약속하신대로 리발실에도 들리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켜보시는 속에서 동행한 여러 일군들이 강성원 리발사들로부터 머리를 깎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자기들의 리발솜씨를 보여드리게 된 리발사들은 무한한 격정에 휩싸였다.

강성원은 오늘도 그처럼 따뜻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을 전해가고있다.

훌륭하게 꾸려진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평양에 공원이 있는것이 아니라 공원속에 평양이 있다.》

이 말은 공화국의 평양을 돌아본 외국손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여 하는 말이다.

평양뿐이 아니다.

공화국 각지에 공원들이 훌륭하게 꾸려져있으며 공원들마다에서는 희열과 랑만에 넘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일요일이나 명절 같은 휴식일이면 공원들에 꾸려진 로라스케트장이며 배구장, 롱구장, 정구장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인다.

공원과 유원지, 유희장들은 사람들이 휴식을 충분히 할수있게 하는 하나의 거점인것으로 하여 문화정서생활조건보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뿐만아니라 극장들과 영화관,

경기장들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은 높은 문화지식을 소유할뿐아니라 즐거운 휴식의 한때도 보내게 된다.

공화국에서는 수도 평양의 명산들인 만경봉과 모란봉, 대성산과 그것을 감돌며 흐르는 대동강과 보통강의 아름다운 풍치에 어울리게 시안의 여러곳에 공원과 유원지들을 잘 건설하고 여러가지 꽃나무, 과일나무, 가로수들을 많이 심어 도시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을 이루게 하고있다. 그리고 묘향산, 칠보산, 금강산 등 명승지들과 도시중심들에 공원과 유원지, 동물원과 식물원, 놀이장과 유희장들을 훌륭히 꾸리고 거기서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휴식하도록 하고있다.

이런 문화체육시설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혜택은 참으로 크다.

모든 근로자들이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개선청년공원유희장과 릉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유희장들에서 현대적인 유희설비들을 마음껏 리용하고있는데 사실 그 봉사료금은 유희장의 설비들에 비해서 놓고볼 때 매우 보잘것없는것이다. 특히 경치좋은 송도원, 마전, 룡수포 등 곳곳에 해수욕장이 건설되여 인민들에게 눅은 가격으로 봉사하고있으며 인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오가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조건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문화정서생활기지리용에서 오늘 조국인민들이 받고있는 혜

택은 릉라곱등어관의 봉사료금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곱등어는 매우 예민한 동물인것으로 하여 그 사양관리에서는 많은 품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곱등어는 다른 동물들이 할수 없는 신비한 재주를 보여주는것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인기가 높고 수요도 대단하다.

그러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곱등어재주를 한번 보려면 많은 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많은 자금으로 건설된 현대적인 곱등어관이지만 그 봉사료금을 눅게 정함으로써 수도를 비롯한 온 나라 근로자들모두가 관람하도록 큰 혜택을 돌려주고있다.

오늘 5월1일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광복거리의 교예극장과 청춘거리의 경기관들, 중앙동물원과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도처에 체육문화시설들이 새롭게 일떠서고 개건되였으며 여기에서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그리고 인민극장, 동평양대극장, 청년야외극장을 비롯한 현대적으로 꾸려진 극장과 영화관들에서는 평범한 수도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공연과 영화도 관람하고있다.

❖위인일화❖

명승지의 새 력사는 건국의 날에

평양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 꽃피고 열매맺히며 단풍들고 서리꽃덮이는 사계절풍경과 함께 대동강을 한옆에 낀것으로 하여 절경인 모란봉.

모란봉은 예로부터 이름난 명승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지난날 가난한 인민들은 모란봉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도 마음대로 즐길수 없었다.

그러던 이곳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명산으로 이름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모란봉에 새 력사를 펼쳐주신 때부터였다.

해방된 조국강산에 건국의 마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던 주체36(1947)년 5월 어느날 모란봉언덕을 지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 처녀애가 금잔디우에서 놀고있는것을 보게 되시였다.

한쪽에서는 어른들이 연예공연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린 처녀애만은 좀 떨어진 곳에서 잔디밭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에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면서 놀고있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애들의 놀이터를 빨리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아동공원도 만들어주고 극장, 구락부도 지어주며 모란봉을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이 다 즐길수 있는 인민

들의 유원지로 잘 꾸려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모란봉유원지를 건설할것을 결심하시고 돌아오시는 길로 일군들을 부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란봉에 야외극장도 크게 짓고 어린이들의 놀이터도 꾸려주자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 일군에게 자금을 타산해보도록 하시였다.

한푼의 자금도 쪼개 쓰고 한g의 세멘트도 나누어 써야 할 당시의 형편에서 모란봉유원지를 건설한다는것은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란봉공원건설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인민을 위한 일인데 인민들이 좋아하는것부터 건설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원건설계획을 보아주시고 우리 인민들이 대를 두고 즐겨야 할 공원건설인데 자금을 아끼지 말라고 하시면서 평방수도 더 늘여주시고 내부에 갖추어야 할 시설들도 보충해주시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모란봉은 짧은 기간에 대중문화시설들을 훌륭히 갖춘 유원지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1947년 7월 모란봉경기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성대한 개원식을 진행하게 되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군중들과 함께 비를 맞으시며 몸소 개원식에 참석하시였다.

모란봉에 새겨진 이 이야기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높은 인민의 명승지와 더불어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위인일화❖

먼저 타보신 관성비행차

절승경개를 자랑하는 모란봉기슭에 봄빛이 짙어가던 주체99(2010)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새로 개건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나오시였다.

그때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는 준공을 앞두고 유희기구들의 최대능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운전을 한창 진행하고있었다.

궤도회전반과 배그네, 급강하탑, 2중회전반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관성비행차를 돌아보실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성비행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나서 이 유희기구의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인민들이 마음놓고 리용하게 하자면 일군들이 먼저 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오늘 여기에 온 일군들부터 관성비행차를 타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관성비행차에로 향하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관성비행차를 타시는것을 그만두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관성비행차를 인민

들이 마음놓고 리용하게 하자면 우리가 먼저 타보아야 한다고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도 타보겠다고, 너무 긴장할건 없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관성비행차에 앞장서 오르시려고 하시였다.

사실 속도가 빠르고 선로의 구배와 곡선이 심한데다가 360°로 회전까지 하면서 달리는 관성비행차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 시운전을 하면서 검증하는 상태에 있었던것이다.

일군들이 그이의 앞을 거듭 막아섰으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타야 할 기대인데 자신께서 먼저 타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굳이 관성비행차에 오르시였다.

인민들의 즐겁고 문화적인 휴식을 위하여 마련된 그처럼 훌륭한 유희기구에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일신의 위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몸소 그 안전성을 확인하시려 관성비행차에 오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를 모신 관성비행차는 이 가슴뜨거운 사연을 온 누리에 소리쳐 전하기라도 하듯 요란한 동음을 울리며 쏜살같이 내달렸다.

즐거움과 긴장감이 엇갈린 시선으로 궤도를 따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관성비행차가 달리는것을 지켜보고있던 동행한 일군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열광적인 박수로 화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휴식터가 마련된것이 못내 만족하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그 광경을 바라보시였다.

관성비행차가 멎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성비행차의 운전과정에 별다른 일은 나타난것이 없었지만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세심히 관심을 돌려주시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희기구리용질서와 규률을 철저히 세워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하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할 유희오락시설 하나를 두고도 그처럼 마음쓰시는 절세위인들의 은정속에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반향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대중봉사기지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

《조선의 어디에서나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볼수 있었다. …참관지마다에서 우리가 놀란것은 그

것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주는 교육교양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것이였다.》

(스위스공산주의청년 총서기)

《정말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이 물놀이장은 내가 가보았던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는 물놀이장들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우리의 놀라움을 자아내는것은 이처럼 훌륭한 물놀이장의 건설기간과 매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것은 다 사람들을 위한데로 지향되고있으며 그들의 편리와 건강을 첫자리에 놓고있다. 여기서 귀국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돌려주시는 사랑이 느껴진다.》

(로씨야련방평의회 제1부의장)

《오늘 문수물놀이장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조선인민이 얼마나 즐겁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고있는가를 그리고 조선에 이처럼 훌륭한 물놀이장이 있다는것을 알도록 사진들을 꼭 인터네트에 올리겠다.》

(로씨야녀성 쎄레브리아꼬바 나딸리야)

《지금 서방은 조선을 악의에 차서 비난하고있다. 하지만 평양방문을 통하여 나는 서방언론들이 미국과 한편이 되여

그들의 앵무새노릇을 곧잘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쓴웃음을 짓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것, 조선사람들은 평화를 매우 사랑하는 민족이며 문명하고 선량한 인민이라고 말해주었다.

…더우기 나를 감동시킨것은 세계일류급의 릉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훌륭한 공원, 유원지들을 평범한 근로자들이 리용한다는것이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서방의 선전이 얼마나 허황하며 비렬한가를 잘 알수 있다.

나는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방의 그릇된 선전에 절대로 속지 말것을 권고한다.

조선이 진정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거든 이 나라에 와보라.》

(로씨야의 한 기업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정치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이다.

대사로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과 평양시내의 여러곳에 꾸려진 로라스케트장, 체육공원, 봉사기지들을 돌아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아름답고 훌륭한 현대적인 봉사기지들이 일떠선것도 놀랍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것을 보면서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로라스케트장에서

아이들과 청년들 지어는 가정부인들까지 로라스케트를 타고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것을 보면서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한 인민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이 누리고있는 높은 수준의 문화정서생활이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의 덕이라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

(주조 로씨야대사)

《마식령스키장은 정말 세계일류급스키장이다. …

세계의 많은 스키장을 돌아보았지만 그처럼 규모가 크고 완벽한 스키장을 보지 못하였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스키장을 마련해주시려고 여러차례 현지에 나오시여 지도해주시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머리가 숙어진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지금 평범한 인민들을 위하여 그런 최고급의 스키장을 꾸려주신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중국 길림덕전세멘트왕청유한책임공사 부총경리)

6.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

조세제도, 세금제도는 국가발생과 함께 생겨났으며 수천년동안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인민들을 략탈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오늘 세계에는 220여개의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나 할것없이 세금을 국가재정수입의 기본원천으로 하고있으며 천태만상의 별의별 형태와 종류의 세금이 존재하고있다.

세금을 떠난 국가의 존립이나 인간생활에 대해 생각할수 없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치고 이 지구상에 세금이 전혀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선뜻 믿으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바로 사회주의조선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를 실현한 유일한 나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는것을 비롯하여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받고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을뿐아니

라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되여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고있습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 세금없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 이것은 수천년 오랜 세월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았으면 하는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경사였다.

공화국에서 세금제도가 페지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였는가

지난날 조세제도는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략탈도구였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조세제도는 조세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살인적인것이였으며 인민들의 저주와 원한의 주되는 대상이였다.

돌이켜보면 조선인민은 착취사회의 장구한 력사적과정을 거쳐 가혹한 조세수탈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특히 일제식민지통치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였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투쟁은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승리를 이룩할수 없었다.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을 투쟁의 기치로 높이 든 그때로부터 조세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은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

하는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되였으며 세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제와 그 주구들이 강요한 각종 세금으로부터 인민을 해방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항일유격근거지, 해방지구들에서 그 실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조국해방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행해야할 《20개조정강》에서 일제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철페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에서는 일제가 만들어놓았던 각종 조세제도가 없어지고 세금형태가 소득세로 단일화되게 되였다.

소득세는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세에는 주민소득세, 협동단체소득세, 지방자치세가 있었다. 세금부과대상으로 되는 소득은 기본생활비, 도급생활비, 가급금, 수당금, 휴가보조금 등이 속하였다.

당시 공화국에서 소득세는 국가재정원천형성의 보충적공간으로서 리용되는 세금의 기본형태였다.

당과 국가에서는 인민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제정한 세금외에 인민들에게 그 어떤 세금부담도 주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였다.

새로운 인민적세금제도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발전시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고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촉진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세금수입을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보충적인 자금원천으로 효과있게 쓰는 한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었다.

공화국에 존재한 세금형태에는 소득세와 함께 현물세가 있었다.

현물세는 국가가 근로농민적토지소유관계를 세운데 기초하여 농민들로부터 일정한 기간 받아들이는 현물조세형태였다.

현물세는 낡은 사회의 소작료와 같은 여러가지 수탈형태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국영공업의 발전과 자립적민족경제토대축성,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인민적성격을 띠는것이였다.

1946년 6월에 제정된 농업현물세제에 의하여 농민들은 수확의 대부분을 빼앗기던 지날날의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나 25%만을 국가에 바치게 되였으며 그것도 점차적으로 감면받았다. 현물세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보장하며 공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당과 국가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현물세를 면제하거나 그 비률을 낮추는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공화국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짐으로써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이 성숙되는데 따라 먼저 농민들이 바치는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사이에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다.

농업현물세제의 폐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과업에 따라 농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조치였으며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농업현물세제의 폐지로 공화국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만 남게 되였으며 그것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조건에서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것은 충분히 성숙된 문제로 되였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언제 실현되였는가

1961년 9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와 농민들의 현물세를 없앰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그들의 실질적소득을 더욱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특히 7개년계획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수입은 1.7배로, 세대당 실질수입은 7년동안에 2배이상으로 높일데 대한 웅대한 목표와 함께 앞으로 짧은 기간에 주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을 없앨것을 예견하였다.

그때 당시 공화국에서는 국가예산수입의 많은 부분이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들에서의 축적에 의하여 보장되고있으며 주민들로부터의 세금수입은 보잘것없는 아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었다.

경제, 문화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국가축적만으로 능히 해결될수 있는 조건에서 이제는 세금의 완전한 페지를 일정에 올리는것이 가능하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와 농민들의 현물세를 없앰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을 온갖 세금부

담에서 완전히 해방할것이며 그들의 실질소득을 더욱 높이게 될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이후 공화국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그리고 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가 채택됨으로써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페지되였다.

하여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인민들의 꿈은 드디여 현실로 되였으며 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복리를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법칙으로 삼는 인민의 진정한 당에 의하여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력사적사변인것이다.

공화국에서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어언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날에 우리 인민들은 세금없는 세상에서 남다른 행복을 누리였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고마운 품에 안겨사는가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하고 귀중한가를 뼈속깊이 새겨안았다.

〔해외동포의 글〕

20세기의 기적, 세금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요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당신은 세금을 내고있는가?

세무국의 직원도 아니고 한달수입의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꼬박꼬박 바치는 내가 새삼스레 이런 물음을 제기한데는 사연이 있다. 한것은 어느날 우연히 인터네트검색전문웨브싸이트인 구글에 《세금없는 나라》를 입력하자 뜻밖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나온 답에 충격을 받아서였다.

세금없는 나라도 있다니? 서방의 표현으로 북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수십년간 제국주의국가들의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 생존하는 특수한 나라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를 리해하는 과정에 알게 된 놀라운 많은 사실들이 나에게 준 커다란 감동이 이 글을 쓴 계기로 되였다.

세금에 짓눌린 사람들

북이 지구상에서 세금없이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그날부터 진실을 알고싶은 나는 많은 시간을 바쳐 관련된 자료수집에 몰두하였다.

세금이란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받아내는 화페수입이다.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발생하면서부터 생겨난 세금은 국민들을 수탈하는 기본공간이였다.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와 같은 착취사회에서 세금은 국가재정수입의 기본항목으로 되였으며 통치자들은 그를 통해 권력기구를 유지하고 백성들에 대한 략탈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정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왔다.

나는 이 글에서 구태여 세금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론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나보다 더 잘 알것이기때문이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많은것을 깨달았다.

수천년전부터 존재하는 세금이였지만 그것이 좋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전부 고통과 부담에 대한 말 지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내고 뼈를 깎는것이라고 욕하는 소리뿐이였다.

가혹한 세금수탈의 력사가 남긴 일화는 참으로 많았다.

고대그리스의 스파르타가 올림픽경기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 일생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준 일,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봉이 15세기말 오스만제국이 들씌운 막중한 과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필사의 노력끝에 발견된 웃지 못할 이야기, 17～18세기경 로씨야황제 뾰뜨르1세가 싼크뜨-뻬쩨르부르그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별의별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짜내다 못해 나중에는 수염을 기른 사람에게는 수염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모자세, 머리칼과 눈의 색갈에 따라서도 세금을 받아낸 악착한 이야기 등이 그러하다.

그런가 하면 제국들의 크고작은 무수한 정복전쟁들이 일어날 때에도 의례히 가혹한 세금정책이 뒤따르군 하였다.

놀랍게도 착취사회의 어느 시기에나 통치배들은 백성들에게 하나와 같은 론리를 주입시켜왔다.

그것은 세금을 왕(국가)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고 국내질서를 유지하며 《태평》을 보장한데 대한 보상으로 그(국가)에게 바치는것으로 묘사한것이다.

실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이였다.

부르죠아고전정치경제학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부르죠아재정학의 《시조》로 불리운 영국의 애덤 스미스도 조세가 국가재정수입의 경상적인 원천으로, 경비충당의 제1재원으로 된다는 리론으로 세금징수의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예로부터 백성은 순진하여 국가를 믿고 그에 의지하려는 관념이 강했다. 통치배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리용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생겨서 오늘까지 백성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오직 통치배들의 리기적목적에 리용되여왔다.

세금이 국가운영에 필수하다는것을 인정하고 나라일이 마음에 든다면 왜 백성들이 그것을 부담으로 여겼겠는가.

어느 사회에서나 백성은 세금을 바치기 위해 종사하는 《기계》였고 각종 명목밑에 가중되는 세금수탈은 백성들의 삶을 핍박하였다.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하고 호랑이보다 무서운것이 세금이라는 말이 전해온것도 그래서였다.

현대에 와서도 세금은 연약한 백성들의 등허리를 무겁게 짓누르며 죽음과 함께 피할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북과 잇닿은 남쪽의 경우만 놓고보자.

남쪽의 세금정책은 수십년간 민중을 괴롭혀왔다.

특히 감옥귀신이 된 박근혜의 집권기간에 만들어진 《세법개정안》으로 해서 온갖 불평등한 세금정책들이 람용되고 《세금폭탄》들이 련이어 터져 민생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다.

통계에 의하면 그때 남쪽당국이 한가정으로부터 빨아낸 년

평균 세금액수는 2010년보다 수천US$ 더 늘어났으며 주민들은 면적이 겨우 0.7평 되나마나한 집 아닌 쪽방에서 살아도 매달 수백US$의 집세를 내야 했다.

《태여났더니 주민세,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월급받으니 근로소득세, 힘들어서 답답한 가슴풀려고 담배핀다고 담배세, 퇴근후 한잔했더니 주류세, 아껴써서 저축했더니 재산세, 결혼 못했다고 독신세, 실업자로 집에 있으면 수도세와 전기세, 아～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세금정책을 비난하는 서민의 글이 인터네트에 올라 많은 가입자들의 공감을 샀다.

세금에 의한 부담이 크니 그를 피하기 위한 탈세행위가 성행하여 각종 범죄가 판을 친다.

문명과 부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도 피차일반이다.

증세와 감세의 오락가락 정책변경속에 녹아나는것은 빈곤계층뿐이고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제도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죽음으로 항거해나서는 일까지 일어나고있는 곳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2015년 4월, 미국회의사당으로는 무장한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뛰여들어 자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이 사나이가 《1%의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라》라는 글이 씌여진 간판을 들고있던 항의시위자였다는것이 판명되였고 여론들은 그가 세금에 눌리워 날로 어려워지는 생활처지에 대한 울분의 표시로 죽음을 택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세금으로 살찌고 전횡을 휘두르는 어리석은 탐욕과 욕망이 날치고 세금때문에 삶과 미래를 졸지에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급증하는것과 같은 구조적모순으로 하여 자본주의제도는 이 시각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서서히 빠져들어가고있다.

세금없는 첫 나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이 필요하다는것이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굳어진 인식이다.

이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세금이 없이도 국가가 운영되고 오히려 민중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한 나라.

이제는 북에 대해서 말해보자.

북에는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바라보는 국세청이나 세무국이라는 《괴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무원이라는 직업도 없고 해마다 바치는 세금보고서도 없다.

조선에서도 계급사회인 고조선때부터 조세제도가 있었지만 조선봉건왕조 말기에는 수탈의 잔인성이 절정에 이르렀다.

홍명희선생이 창작한 장편소설 《림꺽정》에서 보듯이 손바닥에 피가 지며 마련한 털가죽을 관가에 바친 백정촌사람들에게 차례진건 쪼드는 가난과 신분적차이로 인한 갖은 수모와 멸시, 천대뿐이였다.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살인적인 식민지조세제도는 일제강점시기에 있었다.

한해농사를 짓고나면 빚이요, 세금이요 다 뺏기고 백성들에게는 북데기만 남았다. 그것을 털어 겨우 모은 낟알마저 일제는 군량미공납으로 악착하게 빼앗아갔다.

조선민족은 말그대로 《세금을 쓰고 태여나 세금을 지고 죽는》 채무노예의 피눈물나는 신세를 면할수 없었다.

하기에 백성들은 꿈속에서도 세금없는 나라를 갈망하여 왔다.

사무친 소원이 하늘에 닿은듯 드디여 도탄에 빠진 암흑의 땅에 새날이 밝았다.

조선민족의 저주와 원한의 대상인 악착한 조세제도를 청산할데 대한 구상을 일찍부터 무르익혀오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반인민적인 세금제도, 전매제도를 철폐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방이 되자 《20개조정강》에서 새로운 조세강령을 제시하시여 일제의 략탈적인 세금제도를 철폐하고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단일하고도 공정한 세금제도가 세워진 북에서는 사람들이 가혹한 조세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였고 그들이 바치는 많지 않은 현물세와 소득세는 전적으로 나라의 번영과

복지에 돌려지게 되였다.

북에서는 세금수입을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보충적인 자금원천으로 효과있게 쓰는 한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인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제국주의국가들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자금충당을 위해 인민들의 세금수탈을 강화하였지만 북에서는 준엄한 전쟁시기에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고 한푼의 돈이 그립던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소득세를 30%나 낮추고 농민들의 현물세률도 대폭 낮추도록 하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지자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먼저 농민들이 바치던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사이에 완전히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1973년에 이르러 북의 국가예산수입에서 98.1%는 사회주의경리로부터 얻은것이였고 주민들로부터의 세금수입은 1.9%에 불과하였다.

바야흐로 력사의 기적이 태여날 순간이 다가왔다.

인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 **김일성**주석께서는 1972년에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

다.》(제33조)라고 규정하시였고 그후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철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으며 그해 3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그것을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로 제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조선민족의 세기적숙망은 드디여 실현되였고 세금을 국가의 필수적동반물로,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여오던 기성관념과 낡은 시대는 끝장났으며 인류는 세금없는 첫 나라를 현실로 보게 되였다.

세계의 광범한 신문들은 《조선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조선은 4월 1일부터 세금을 받지 않는다》, 《조선인민 세금에서 완전히 해방》, 《세상에서 세금을 철페한 첫 나라》라는 제목으로 그 의의를 대서특필하였다.

수많은 인사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이 비결을 배우기 위해 앞을 다투어 북에 찾아왔다.

그러나 서방세계는 아직도 이에 대해 믿기 어려운 일, 리해할수 없는 현실, 수수께끼같은 문제라고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세금이 없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 정확히 리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면 될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어느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학급학생들과 조세문제와 관련한 토론

을 벌린적이 있었다.

당시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북에서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앨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이 제시되였다. 토론의 초점은 농업협동조합에서 바치는 현물세가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의 일종인데 사회주의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선행리론에서는 조세문제를 국가의 존재와 결부시키면서 조세의 성격도 국가의 계급적성격에 기초하여 규정하였고 조세의 본질도 국가가 국민소득을 재분배하여 국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리론으로는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앨데 대한 과업을 타당하게 설명할수가 없었다.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의 견해는 지금 서방세계가 생각하듯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조세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데 머물러있었던것이다.

이날 조세제도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깨우쳐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조세에 대한 리해를 국가와 함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제와도 결부시켜보아야 한다는 원리를 새롭게 밝히시였다. 그리고 조세는 사적소유에 의거한 착취사회의 고유한 경제적현상이며 국가가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소유,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다면 국가와 사회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세공간을 리용하지 않고도 국가소유의 기업

소들에서 얼마든지 얻어낼수 있을것이라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일제히 환성을 올렸고 조세페절문제를 순간에 해명하신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비상한 론리적분석은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만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북의 인민들은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에서 정권의 주인이 되여 사회와 경제발전에 참답게 기여하고있으니 세금이 필요없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세금페지는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을 모심으로 하여 북민중만이 받아안은 행운중의 행운으로 되였다.

웃고있는 사람들

세상을 둘러보면 세금때문에 흘리는 인간의 눈물을 북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제대로 닦아주지 못하고있다.

돌이켜보면 백성들에게서 악착하게 짜낸 세금은 지배층의 권력강화와 부귀영화에 막대한 리익을 준 반면에 백성들의 커다란 불만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한때 영국의 어느 학자는 력사에 기록된 크고작은 수많은 대중적봉기들과 농민폭동들의 원인이 가혹한 세금수탈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적이 있다.

로마제국의 멸망, 프랑스혁명, 카슈미르폭동 등이 그러하였다.

무자비한 세금징수를 실시한 폭군 네로는 방탕한 생활로 재정위기에 처하자 도시에서 팔리는 모든 음식물에 세금을 물게 했고 집군에게는 하루벌이의 8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하였다. 그후 집권한 베스파시아누스는 시민들에게 심지어 공동변소를 사용할 때에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강요하였다. 백성들의 반감은 극도에 달했고 에스빠냐와 팔레스티나 등 속국들에서는 인민폭동이 거세차게 일어나 결국 로마제국은 붕괴되고말았다.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수십종을 헤아리는 세금부담으로 사람들이 2중3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지금 이 시각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오죽하면 마크 트웨인이 《세무원과 박제사의 차이는 박제사는 세무원과 달리 우리의 피부만 벗겨간다는것이다.》라는 말로 미국의 세금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겠는가.

2009년부터 미국에서 정부의 지출과 세금증대를 반대하여 《티파티》라는 시민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고 세계적인 반월가시위가 빈번히 일어나고있는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고 남쪽땅에는 아직도 반세기이상 미군이 주둔하고있다.

이남민중이 바친 세금의 많은 몫이 당국을 통해 미국에 고스란히 바쳐지고있다. 국민들은 생활난에 허덕이고 대학생

들은 등록금에 죽어가는데 당국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외세에 섬겨바치고있다.

그러나 북민중은 늘 웃고있으며 공화국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세상에는 《선진국가》,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세금이 없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사실 북이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는것은 결코 남보다 경제가 더 발전되였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세금제도가 페지된 1970년대에 북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대규모전쟁연습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여 군력강화에 막강한 힘을 기울여야 하였다.

바로 그런 속에서 북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페지하였던것이다.

세금을 없앤 북의 조치는 사회주의나라라고 하여 다 실시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부유한 나라라고 하여 실시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로동계급의 정권하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세금을 받으면 손쉽게 국가의 재정원천을 확보할수 있다는데 대해 잘 알고있는 북이지만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인민의 부담을 국가가 걸머지고 국가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것이

북의 고유한 정치방식이다.

북은 전후 수십년간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고립압살책동과 제재속에서 살아오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북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소동은 잔인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북의 정권은 언제 한번 세금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한적이 없으며 오직 자신들이 쌓아온 자립적경제토대와 자강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나가고있다.

만일 북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그러한 환경에 처하였더라면 그 해결방도를 세금인상에서 찾았을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세금페지의 위대한 업적은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정은**국무위원장에 의해 45년동안 굳건히 유지고수되고있다.

3년전 리히텐슈타인공국 왕자가 북의 여러곳을 방문한 소감에 대하여 피력한 글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적이 있다.

유럽의 중부에 위치하고 세계에서 세번째로 작은 내륙국가인 리히텐슈타인공국은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에 비해 세금이 적은것으로 하여 여러 나라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고있으며 2 000여개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여 들어와있다.

따라서 세금과 관해서는 일종의 자부심도 없지 않은 이 나라의 왕자가 세금없는 북에 대해 내린 평가는 그만큼 세인의 커다란 관심사였다.

그는 글에서 과거 자신이 랭전시대 동유럽의 나라들을 여러차례 방문해서 《공산주의체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알고있다.》고 전제하면서 북을 방문하는 기간 가장 놀라웠던 점으로 경제와 예산체계를 꼽았다.

그러면서 세금이 없고 누구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아빠트가 공짜인 나라, 의료봉사와 교육이 무료이며 심지어 정부가 음식까지 제공하는 나라에 갔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탐구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걷는 대신 국영기업의 수익을 가져간다는것을 통해 일부 리해는 하게 되였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정부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교육과 과학, 기술, 아이들의 미래에 노력을 쏟아붓고있었다는 점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더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명백한것은 북이 실시하는 놀라운 시책들에 의해 인민들은 늘 웃음속에 살고있으며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인민을 위한 헌신과 사랑속에 그들의 삶은 더욱 윤택해진다는것이다.

그러니 전체 인민의 지지를 받는 공화국이 나날이 강대해지는것은 당연한것이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정치에서 나는 그것을 굳게 확신한다.

－ 재카나다동포 리상명의 글 －

공화국의 인민적시책 문답

저　자	리연선
장　정	김영일
교　정	리명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9(2020)년 10월 20일
발　행	주체109(2020)년 10월 25일

ㄱ-1485ㄷ

ISBN 978-9946-31-128-9